

의좋은 형제의 고향

# 예산의 문화산수화 2

禮山 文化山水畫

신익선 著



의좋은 형제의 고향  
예산의 문화산수화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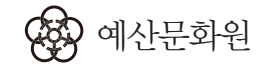
신익선

---

저자 신익선

시인, 문학평론가  
경희대학교대학원 국어국문학과에서 현대문학 전공  
저서로 『사람들은 소리를 낸다』 외 19권 출간하였고,  
현재, 충남문인협회 회장이다.  
E-mail: syy1118@hanmail.net

사진 : 이병현



|서시

## 예산 찬가

조상대대로 예산에 터 잡아 밭 갈고 씨 뿌리네  
어둠 깨워 흘러가는 무한천이  
금오산 산마루에 아침햇살 퍼 올리면  
봉수산 저 편 예산 꿈덩굴이 송두리째 뺏어오네

예당호 맑은 물줄기 예당평야 살찌우고  
수덕사 가람 종소리 덕숭산에 울려 퍼지면  
가야산 빼어난 풍광에 덕산온천수 터지네

일찍 일어나 밤늦게까지 땀 흘려 일하며  
아버이 섬기다 늙어 다시 아버이로 존경 받는  
순한 사람들 순하게 살아가는 토방에

달빛 고요하여라 행복한 웃음만 골골에 퍼져가네  
새벽 그윽하여라 행복한 꿈자리만 마당에 쌓여가네

예당호 원경

## 향토문화의 새 지평을 연 예산문화원

예산문화원에서 2년 전, 신묘년에 우리지역 예산의 지명과 풍습에 운율과 서정을 붙여 시로 승화시켰던 신익선 선생님의 『예산의 문화산수화』 1권을 발간했을 때의 여운이 아직도 마음속에 생생하게 남아 있습니다. 1권이 발간되었을 때 미처 담아내지 못한 우리지역 예산의 면면의 모습을 찾아 제2, 제3의 예산의 문화산수화로 이어지기를 바랐던 마음을 고이 들어주신 신익선 선생님께 먼저 감사의 마음을 올리며, 우리지역 예산의 노래를 또 한 권의 책에 담아 따뜻한 온정과 함께 전하게 되어 더욱 감개무량합니다.

향토색 짙은 지역의 모습에 다양하면서도 아름다운 서정의 물감을 채색해 주었던 『예산의 문화산수화-1』이 시발점이 되어 이제는 한국의 여러 고장에서 향토문화와 시, 또는 산문이 결합되어진 작품집이 출간되는 실정입니다. 지역의 고유한 문화와 문화재를 예술 작품화 하는 일은 각박한 우리의 삶에 활력과 감동을 가져다줍니



다. 이렇듯 문화 창달의 새 지평을 연 모습을 상기해 보면 신익선 선생님과 예산문화원이 여타 지역의 향토문화를 더욱 감흥 짙게 했구나라는 뿌듯함과 자긍심에 새삼 행복감에 빠져 보기도 합니다.

앞으로도 이렇듯 문학이 지역의 향토문화를 발굴하고 계승해 나가는 데 있어 크게 기여하리라 여겨집니다. 아울러 지역의 모든 향토문화재와 문학이 서로 어우러지는 향토문화시화로 우리 문화의 우수성을 되살려, 고단한 삶에 위로와 희망을 불어넣어 삶을 더욱 사랑하고 의미 있게 만드는 문화의 꽃이 되길 기원합니다.

2013년 12월 20일

예산문화원장  
공학박사 김시운

## 예산의 유물·유적에 접신한 작은 고백록

시집 특성상 부피가 작아 『예산의 문화산수화 1』에서 다루지 못한 시편을 이 시집에 신는다. 시를 쓰면서 금오산 휘감는 아침 태양의 고향이 예산임을 알게 된다. 어찌 태양뿐인가. 무한천은 둥근 달이 떠오르는 첫 동네이고, 예당호는 하늘 별무리의 첫 호적지이다.

조용하지만 예산 처처에는 예산만의 삶이 흐른다. 예산만의 웅혼한 열기가 요동친다. 하여, 이 글은 삶의 고난과 역경을 극복한 예산사람들의 발자취와 다양한 예산의 유물·유적에 접신한 작은 고백록이다.

시를 쓰면서 예산지역의 고유한 올림과 신비한 파장을 접하였다. 이 올림들의 다양한 파노라마에 예술성과 사상성을 접목시켜 여하히 등가를 이룰 것인가를 고심하였다. 실로 무수히 전율하면서 이 시편들을 썼다. 허나 미진함을 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편들은 모두 찬연히 불타오를 예산의 불길이라 주장하길 마다치 않겠다. 비단 과거와 현재만이 아닌 내일을 향한

유구할 미래와 영원애의 폭발음이자 꿈이며 복된 삶의 작은 올림이라 외치기를 주저치 않겠다.

모르게 계절이 오고간다. 보이지 않게 한 세대도 오고간다. 계절과 각 세대의 붉은 눈망울의 여울마다 슬픔과 소망도 오간다. 모름지기 예산은 예산의 품에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행복한 내일을 열어 줄 것이다. 이 시집에 수록된 사진은 이병헌 소설가가 직접 탐사하여 촬영한 작품들이다. 고마운 일이다. 더하여 우리 예산지역의 문화예술 발전 진흥에 헌신하시는 예산문화원, 공학박사 김시운 원장께 감사드린다.

2013년 12월 20일

신익선 識

서시 예산 찬가 ..... 2  
 발간사 향토문화의 새 지평을 연 예산문화원 | 김시운 ..... 4  
 머리말 예산의 유물·유적에 접신한 작은 고백록 | 신익선 ..... 6

### 1 금오산 일출

금오산 일출 ..... 14  
 수덕사 대웅전의 말씀 ..... 16  
 수당 이남규 의사 고택의 깃발 ..... 18  
 봉산 화전리 사면불상의 기도 ..... 20  
 문의공, 자암 김구 ..... 22  
 고인들의 유언 ..... 24  
 예산산성의 말 ..... 26  
 일연각 ..... 29  
 임존성 묘순이바위 ..... 31  
 조의사당을 말하다 ..... 32  
 아계영당의 숨고르기 ..... 35  
 산성리 열녀바위의 정념 ..... 36  
 옥계리 태봉 유지 ..... 38  
 강민침 장군 잠들다 ..... 40  
 이성만 형제 효제비 ..... 43  
 예산이라는 이름 ..... 44

### 2 저한당의 달

수덕여관 ..... 48  
 흰모래 시비 ..... 50  
 적막 ..... 52  
 보석사 석등 ..... 55  
 예당저수지 수문 ..... 57  
 봉수산 휴양림 ..... 59  
 탈해사의 일생 ..... 61  
 상가리 미륵불 ..... 63  
 여래탑돌이 ..... 65  
 저한당의 달 ..... 66  
 만공탑 눈빛 ..... 68  
 관작리 동학혁명기념비의 노래 ..... 70  
 예산 옛이야기 축제 ..... 72  
 충령사 목숨 ..... 75  
 대흥 척화비 옆에서 ..... 77  
 예산조각공원의 별애기 ..... 78  
 새벽이 산다 ..... 81  
 대흥 상중리 천년 느티나무 ..... 82  
 황새의 춤 ..... 84  
 예산성당 첨탑의 후광 ..... 86  
 예산 분례 숲길 ..... 88

### 3 여사울 성지

가야산 가야봉 .....	92
여사울 성지 .....	95
대회리 꿀벌집 .....	96
일우 김한중 의사 생가의 불길 .....	98
호서은행, 조선의 심장이여 .....	101
가야사 금탑자리 .....	102
절골 상가리 윗산소 .....	103
삼교 석조보살입상의 영겁 .....	104
충의사 장승 .....	106
임존성 청수에 뜬 반달 .....	108
오천리 도공의 생애 .....	110
약수전 .....	112
대치천 고라니 .....	114
금오산 상사화 .....	116
광시 염병굴 .....	118
일엽스님 다비석 .....	119
고운봉 선생 노래비 .....	120
대술아영지 .....	122
신례원역 .....	124
태봉산 태실비를 쓰다 .....	126
삼교천 독새풀 .....	128

### 4 삼교천 붉은 물살

수덕여관 암각화 .....	130
법륜사 수레바퀴 .....	132
고덕 구만천 백일홍 .....	134
백석골 도산서원 .....	135
예산대교 .....	136
추사 기념관의 빙화 .....	139
덕산 원효봉 계곡의 달 .....	140
옥계계곡 세이암 .....	142
덕산향교 .....	144
대흥향교 은행나무 .....	146
삼교천 붉은 물살 .....	148
대흥 대울리 밤이마을 .....	150
삼다리 노래비 .....	151
대흥 동헌 .....	152
마전 범씨 .....	154
덕산초등학교 광현관 .....	156
웃골 도독고양이 .....	158
너봉골의 기도 .....	160
덕산 사과나무 이야기 .....	162
신양리 차동고개 .....	165
동암 유택 .....	166

## 5 덕숭산 진달래

자갈들 새벽종소리.....	168
우계문학비.....	170
하평리 논보리.....	172
온천뜰 분수대.....	174
모과울 방충망.....	176
상하리 산안개.....	177
덕숭산 진달래.....	178
거무실 바구미.....	179
당나무들 장복교회.....	180
송산 가을비에 묻다.....	182
속별 가을누에.....	183
조실 감응초.....	184
월산 다람쥐.....	186
금오산 백로 떼.....	188
수촌리 설까치.....	190
역리 예배당 십자가.....	192
초막골 은사시나무.....	194
피촌말 유기장이.....	196
시장뜸 눈물.....	198
나븐들 상여.....	199
서평 예산의 문화유물·유적에 관한 관찰기록   안학원.....	2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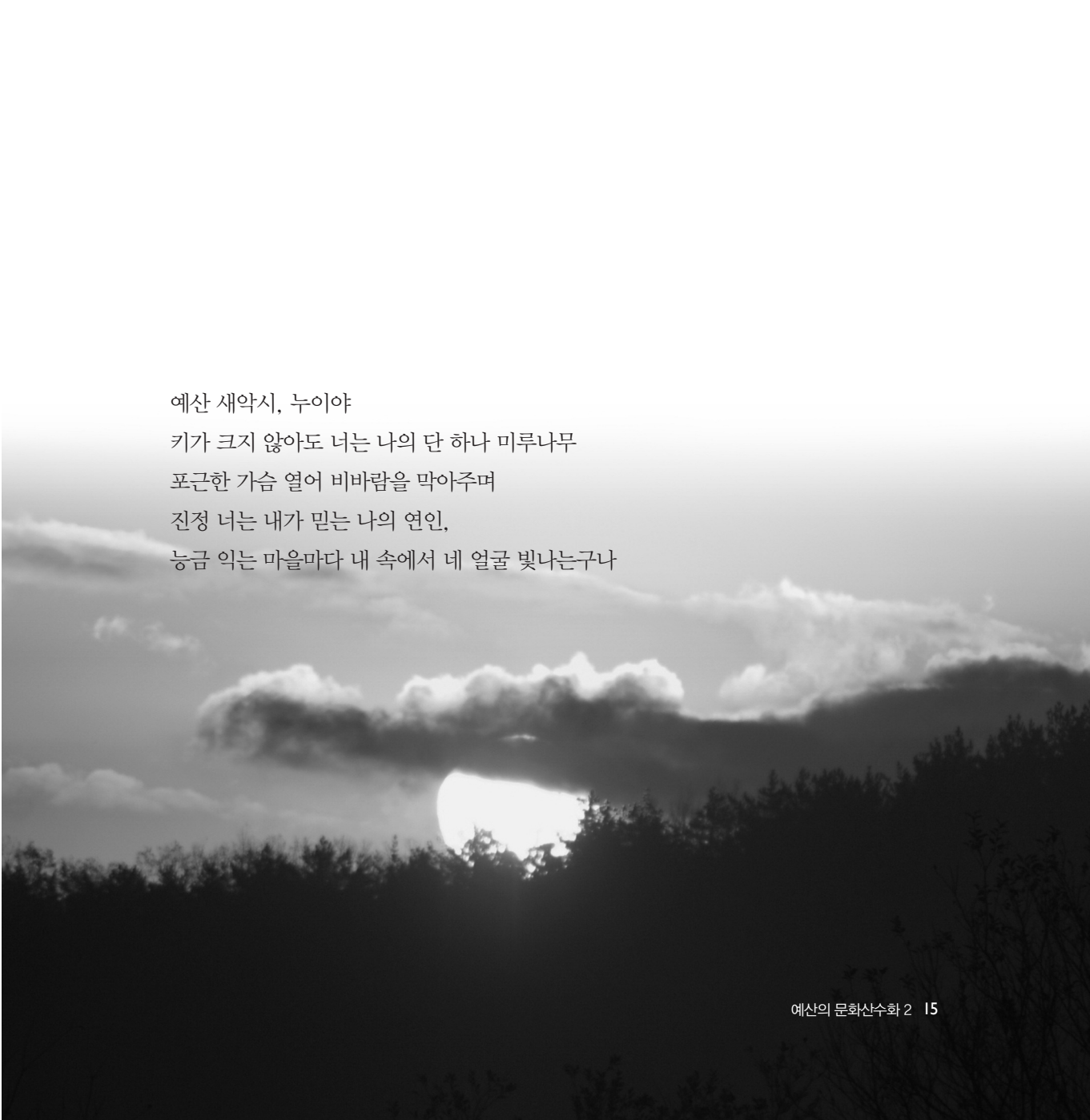
## 1 금오산 일출



## 금오산 일출

도톰한 입술, 누이야  
뚜렷하게 예쁘지 않아도 웬지 든든하고 다정하구나  
언제 어디서든 너는 내 녀이 되어  
언제 어디서든 너는 내가 부르면 달려와  
언제 어디서든 와락 내 품에 안길 것만 같구나

얇은 눈썹, 누이야  
대기의 공기 중에 너의 편안한 호흡이 실려 있구나  
오랫동안 네 속을 상하게 하여도  
무던히 참아내며 나를 바라보는 네 눈망을  
나 대신 서녘 초승달이 잠깐 너를 보듬고 가는구나



예산 새악시, 누이야  
키가 크지 않아도 너는 나의 단 하나 미루나무  
포근한 가슴 열어 비바람을 막아주며  
진정 너는 내가 믿는 나의 연인,  
능금 익는 마을마다 내 속에서 네 얼굴 빛나는구나

## 수덕사 대웅전의 말씀

백제의 곡선이 생령으로 뭉쳐 말씀 이룬 불전佛殿,  
그리운 이를 꿈속에서 만날 때나  
사무치는 이, 간절히 보고 싶걸랑 여기로 오시라  
맞배지붕에 배흘림기둥이 서로 부둥켜안는다

못 하나 쓰지 않고 순전히 목재로만 몸을 이뤄  
덕숭산 어미로 사는 꿈결의 풍경소리  
식탁 밥 한 그릇에도 합장 올리며  
벌레 한 마리, 개미 한 마리도 소중히 모시는데  
하물며 인연이야 말하여 무엇하랴

만나는 이가 내 부모 내 형제자매라  
맞배지기로 맞들며 살아온 눈물 홍수의 일대기  
무엇 하나 헛된 것 없다 말씀 내는 수덕사 대웅전



수덕사 대웅전 전경

## 수당<sup>修堂</sup> 이남규 의사 고택의 깃발

명성황후의 분한 두 눈 감겨드린 의기가 펄럭인다  
안동부 관찰사와 중추원 의관을 지낸 후에 낙향,  
유년시절부터 뛰어놀던 고택에 살다가  
의병장 민중식을 숨겨 준 일로 구금되어  
온양 평촌 냇가에서 일제의 칼날에 절명한 수당의 거처

동시에 절명한 아드님을 데리고  
국권 빼긴 망국 백성의 큰 슬픔 버무려 살아가는  
예산 대술의 야산 자락에는 지금도  
형형한 두 눈 빛나는 수당의 기침소리 잦아드는데

제 이름 쓰며 평화로이 사는 자유의 땅에  
땀돌 내려온 수당이 꽃는 자유 대한의 붉은 깃발

수당 고택 전경



## 봉산 화전리 사면불상의 기도

얼굴 없이 사는 봉산 사면불상

얼굴이 없다면야  
몸이야 실상 없는 것인데  
흙 뭉쳐 돌 되었다가  
원래의 흙으로 다시 가신 것일까

눈 코 귀 입술 죄다 떠나보낸 후  
무른 상처에서 돋는  
빛나는 염력의 문 열고

일평생 소원 비는 예산 어머니



봉산 화전리 사면불상

## 문의공, 자암 김구

이십대 그 꽃다운 나이에  
국왕과 마주앉은 청년을 봐  
조선 국왕과 단들이 대작對酌하며 노랫 부르네  
승정원 좌승지를 거쳐 종2품 홍문관 부제학으로  
왕을 보필하다가 겨우 서른한 살에  
전라도 남해로 유배를 떠난 젊은이를 봐  
해배 뒤 향리에 들어서야 양친의 구물俱沒을 알고는  
부모의 묘 옆에서 시묘 살이 하다가  
묘 옆에서 운명한 조선의 대유大儒이자 명필  
예산 신암의 유혼을 좀 봐  
소탈하게 충효로 산 어른을 좀 봐



자암 김구의 묘소

## 고인들의 유언

글쟁이의 최후는 이렇다  
최소한 뼈다귀로 쓰러지는 일이다

여기저기 기웃기웃  
개똥 문학상 하나 꺾쳐보려고  
안달복달 제 몸 팔아먹는  
똥개 노릇 하지 않을 일이다

제 눈물과 제 땀 흘려  
부족하면 부족한대로  
어리석으면 또 그런대로  
글의 피돌기를 책임지는 일이다

11월 폭설에 죽은 뼈를 깨워  
다시 일어서는 신암 조곡리 고인돌

신암 조곡리 고인돌



## 예산산성의 말

지키는 게 무어 그리 중하나  
손바닥만한 성을 잃은들 또 어땡단 말이나  
그러나 판 산, 이곳은 예산 땅  
이 땅을 살다 가신 어버이들의 한이  
고이 잠들어 있는 거룩한 성지  
그러니 어진이들이여  
얼마 안 남아 있는데다 몸 부서졌다고  
산성리 정신을 버리지 말라  
우리의 옹골찬 뿌리 잊지 말라



예산산성 초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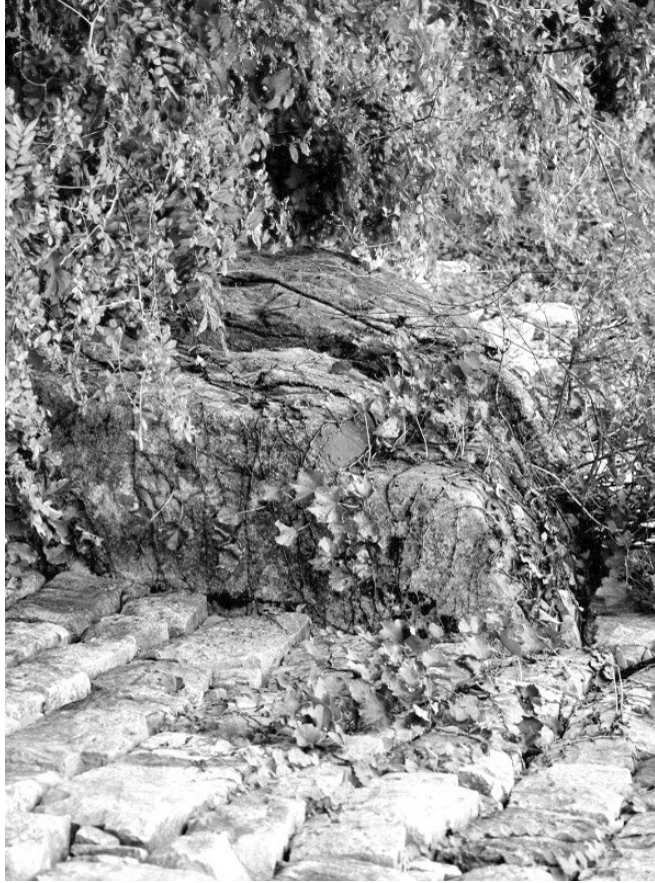


일연각

## 일연각—鳶閣

올다 올다 올다 올다가 당신은 가셨습니다  
한 평생 주권 잃은 나라 되찾으려 일제와 맞서다가  
육이오 사변 시 공산당원 흉탄에 절명하셨습니다  
당신을 기려 신례원에 세운 작은집  
제향 한 번 올리지 않은 집에 갈 낙엽이 뒹굽니다  
일연 선생님, 이 가을 조선의 울음이 뒹굽니다

\*일연 : 독립운동가 신현상 선생의 아호



묘순이바위

## 임존성 묘순이바위

전설 아니다 묘순 처녀는 임존성 실존인물이다  
종콩, 팔죽이 웬수라는 말은 각색되어진 말이다  
백제, 백제를 붙잡고  
백제, 백제라는 성을 쌓고 지키다가 죽은  
임존성 할아버지들이 아끼고 아끼는 임존성 처녀다  
사내들 밤잠 못들게 하는  
봉수산 산정에 서 봐라 시퍼런 임존성 생수다  
몸 안의 기운 뿜어 올리는 묘순 처녀다  
백제, 백제 묘순이 처녀가 성 돌에 묻혀서까지  
백제의 신비로운 물줄기 내는 실체,  
가공의 이야기 아니다 봉수산 묘순이 바위는 실제다

## 조익사당趙翼祠堂을 말하다

아름다운 사내다 불의에 맞서 벼슬을 내던지는  
뜨거운 사내다 신창 땅 오두막에서 밭 갈고 책 읽는  
집요한 사내다 무려 서른다섯 권의 저서를 쓰고  
곤지록, 증용주해, 대학주해, 서경천선을 써서  
나라를 바로 다스리시라 효종께 지어 바친 학자,  
다시 벼슬길에 들어 우의정, 좌의정을 지내고  
종내 신앙고을 산중에 들어 영명한 늠름한 사내다  
경학, 병법, 복술까지 능한 사내의 혼이 사는  
예산 고을 신앙이다, 한없이 설레는  
아름다운 첫사랑의 땅 신앙의 조익 선생 사당



조익사당



아계영당 전경

## 아계영당 鵝溪影堂의 숨고르기

때로 바람을 내려놓는다  
잔잔한 가을 강 흘러 화산천에 스미면  
싸리문발에 흠뻑리는 눈송이  
목은 이색 선생의 후손으로  
사가독서를 한 이후부터 승승장구하여  
마침내 조선의 영의정에 오른  
수백 년 몸짓노래 담긴  
바람 내려놓고 숨 고른다

\*아계 : 이산해의 아호

## 산성리 열녀바위의 정념

갑자기 회오리바람이 몰아치고 있다  
바위조차 뽑아 던지는 강렬한 폭풍의 돌기가  
지아비를 따라 물속에 뛰어들어 절명한  
바위를 갈라 쪼개고 있다  
한 여인의 버선발이 움푹 새겨진  
바위를 일러 사람들은 열녀바위라 부르지만  
저건 엄청난 회오리바람이다 가슴폭풍이다  
한 사람을 향한 굳건한 신뢰,  
영원히 예산사람들을 울릴 정념의 표식이자  
한 사랑을 향한 불타오르는 열망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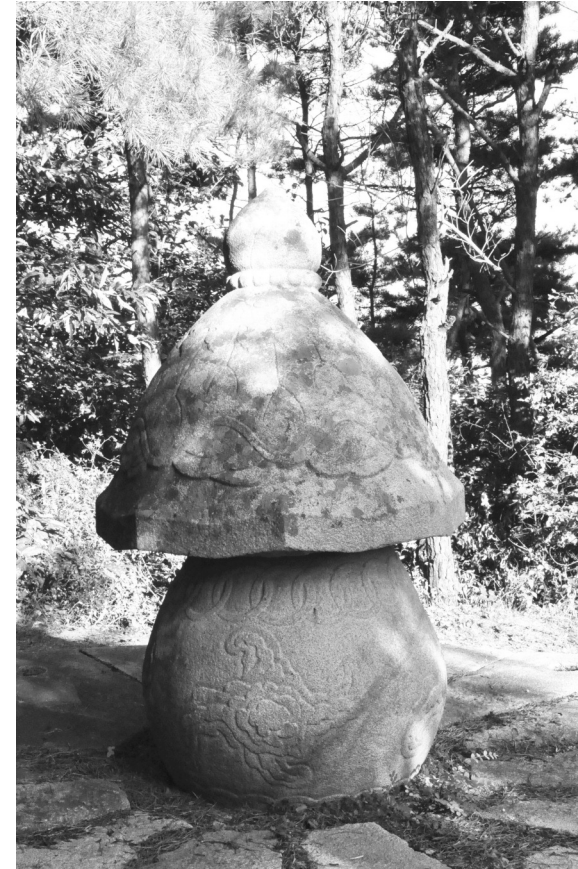
산성리 열녀바위

## 옥계리 태봉 유지遺止

조선국 현종대왕을 키운 뱃줄이지만 사라지라  
임금을 감싼 태실이지만 버려라  
사람마다 이름이 있기는 한다면 지워라  
그 이름을 간절히 부르긴 한다면 잊어라

너무나 소중하여 입속말로도 못 부르던  
화인 맞은 사람도 잊고 살아가지 않느냐

비석은 다 사라지고 산 아래로 굴러와  
사라지고, 버리고, 지우고, 잊어가는 생으로  
겨우 남아 있는 태실의 한줌 귀부석龜趺石



귀부석

## 강민첨 장군 잠들다

은열공 강민첨 장군이 외적을 짓밟는다  
거란 병사 십만을 귀주에서 섬멸시킨  
상원수 강감찬, 부원수 강민첨 장군의 드높은 전공

전쟁이 끝난 뒤, 운이 좋았다고  
가족들에게 당시를 회고하며 소회를 밝혔지만  
진주에서 태어나 여기 대술 산중 이티리에  
귀주대첩의 명장이 영면하고 있다

평생 장군을 모시던 마부와 말 무덤도  
감탕골 골짜기에서 은열공 혼백을 모시고 산다



강민첨 장군 묘소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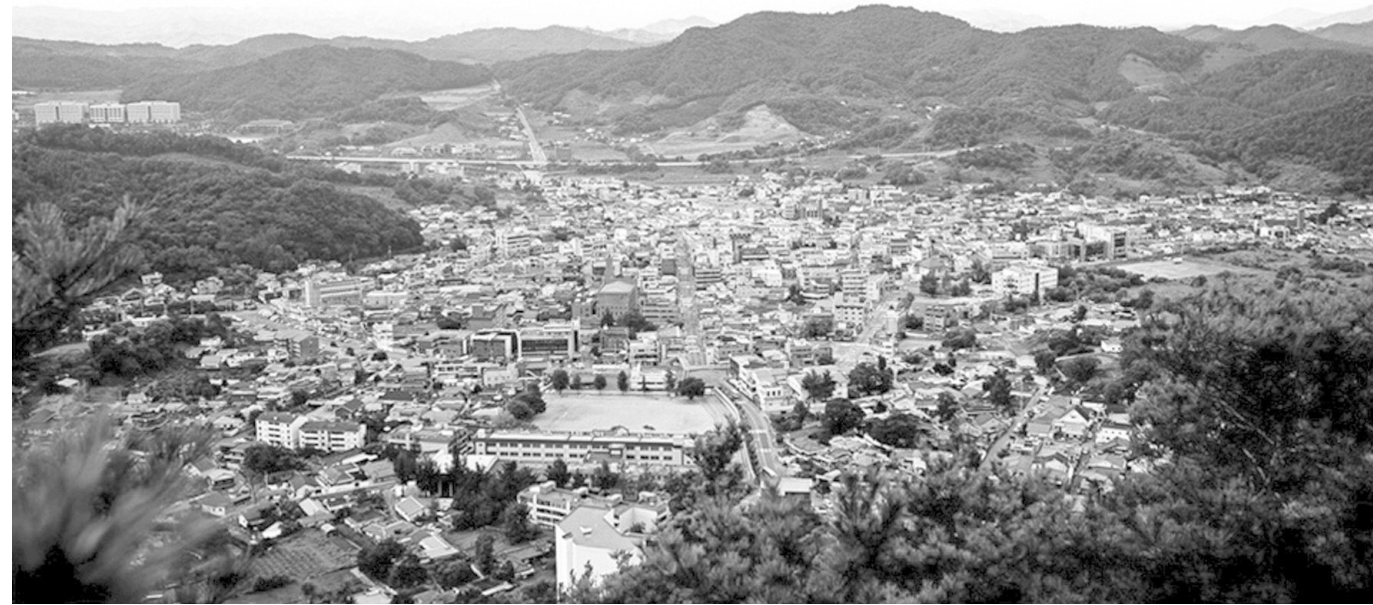


## 이성만 형제 효제비

장례 모신 뒤 부의금 차지하려 눈멀고  
유산 다툼에 형제간 떡살잡이하는  
질서와 우애와 효를 잃어버린 패역한 세대여  
여기 예산 고을 대흥에 오라  
주고 주고 또 주어도 행복한  
주고 주고 또 주어도 더 못 주어 안달하는  
착하다착한 예산사람, 이성만 형제를 만나라  
내 욕심 부리지 않고 그저 주기만 한  
형제 이야기는 아마 우주에서 단 한 곳,  
여기 봉수산 마을 대흥에만 있음이니  
형제간 불화하며 사는 자식들아 오라  
부모까지 욕보이는 망나니 자식들아 와 보라

## 예산이라는 이름

예산이라는 이름에는 예산이 산다  
예산 봉산에서 올린 흑치상지의 천만 봉홧불이 산다  
외세와 죽음으로 맞선 백제부흥군이 산다  
추상처럼 추사체를 완성시킨 추사가 살고  
덕숭산 그 자체인 백제 고찰 수덕사가 산다  
일제를 꾸짖는 최익현 선생이 광시 유택에서 일어나  
불 이웃한 대술 수당 고택에 들르시고  
민족혼의 활화산 열혈 청년 매헌이 산다  
의좋은 형제가 사이좋게 살아가는 대흥고을이 살고  
예산 분례 숲길에 처녀 분례가 산다  
두 명의 황제를 손자로 둔 남연군은 더러  
아들인 대원군이 세운 대흥의 척화비를 보러 가고  
덕산온천 지나 삼교 미륵불상 옆 동네



금오산 정상에서 바라본 예산시내 전경(사진 출처 : 다음블로그 <悠悠自適>)

목은 이색 선생의 사당이 삼교 목리에 살고 있다  
변함없이 첫 새벽을 여는 금오산이  
언젠가 크게 포효할 반도의 십자가인 예산  
예산이라는 이름에는 예산이 산다

예산의 문화산수화

2

저한당의 달



## 수덕여관

아가로, 그 옛날 옛적의 새 아가로  
한복 차림의 새 아가로 다소곳이 사는 여인이 있어  
덕숭산과 수덕사가 유숙하는 집에 여인이 있어  
동백림 사건에 연루되어 옥살이 한 고암 선생의  
상한 몸 돌보며 그린 마당귀 암각화 보는 여인 있어  
아무리 수덕사 일주문을 들어왔어도  
함방하지 못하면 일주<sup>株</sup>로 살지 못하는 사랑 있어  
꼭꼭 숨겨놓고 혼자만 보고 싶은 꿈이 있어  
아가로, 그 옛날 옛적의 새 아가로  
후들대는 영혼에 퍼지는 아카시아 향의 여인 있어  
그 품에서 죽어도 좋은 가슴 있어

수덕여관



## 흰모래 시비

겨우 한 살 때 어머니 등에 업혀  
한 살 갓난아이가 봉산에 터 잡은  
이희철 동시작가의 모교인 봉산초교 마당귀  
가야산 자락에 사는 산비둘기 떼 지어 내리는 곁에  
무릎 높이나 될까, 작지만 상쾌하게  
명랑하게 동시가 아침햇살에 울려 퍼진다  
백사장의 흰모래를 사모하여  
아호조차 흰모래로 지은 구봉 선생 시비가  
청명한 음성으로 예산고을 밝히며  
산첩첩 봉산 뜰에 풋웃음을 낸다



이희철 시비

## 적막

- 문헌공 조두순의 가옥

삼정문란으로 민란이 끊이지 않자  
나라를 바로잡고자 하였으나 배는 이미 기울었다  
나라에서는 아흔아홉 칸의 대저택을  
퇴임한 영의정에게 하사하였으나  
하인들의 시중을 받으며 살던 집도 허물어져  
반도 안 남은 기와지붕엔 고요만 떠돌고  
삶의 궁극은 적막인가  
대흥골 산까치만 아픈 나래 쉬고 있다



문헌공 조두순이 살던 동서리 전통가옥 전경



## 보석사 석등

어디선가 자꾸 웃음소리가 보인다  
오래 된 고찰이 불타오르는데 누가 웃고 있나  
불에 녹아 사라지는 대웅전 부처 눈에  
불길 밟으며 흰 눈발 걸어 걸어오는  
첫 연모의 낮은 발자국소리 보인다  
불길 치솟는 화염의 대지 보인다  
인근 가야사 불길에서 걸어오는 생명 보인다  
얼어붙은 대지에 이미 움트는 꽃망울들  
너무나 간절하면 마침내 돌멩이도 빛을 내고  
오래된 꿈도 생명을 내보인다



예당저수지 수문 전면

## 예당저수지 수문

새벽에 잠깨어 일어나  
주체할 수 없소  
간 밤 내내 당신 보고 싶어  
장대비에 불어난 몸으로  
아아 시근벌떡  
일어서서 평야를 달린다오  
그리운 당신께 달려간다오



봉수산 휴양림 속 통나무집

## 봉수산 휴양림

봉수산 휴양림에 오면  
할아버지들  
백제 임존성 백제 할아버지들이 반겨 맞으신다  
힘들지, 사느라 너무 힘들지  
상처투성이로구나, 그래 너무 아파하지 말거라  
눈이 부었구나, 그만 울거라  
혼자가 아니라고, 너 혼자 사는 게 아니라고  
등 쓰다듬다가 어깨 꼭 껴안아 주신다  
예당호수 출렁이는  
봉수산 휴양림에 오면



탈해사 극락전

## 탈해사의 일생

무턱대고 그저  
이 놈이 말하는 거나  
저 놈이 말하는 거나  
일색으로 그저  
그그그 극락, 처처처 천국이  
흔한 그 말이 싫어  
그딴 말 안 하고 그저  
천년 넘도록 한자리에서  
병든 중생 고치며  
하늘에 사는  
탈해사의 일생



## 상가리 미륵불

어떻게 뻥히 눈 뜨고 지켜보란 말이나  
야, 이 더러운 것들아  
내 새끼 내 부모가 참살 당하는데  
대 사찰 가야사가 방화로 불타 없어지는데  
나라, 라는 이름의 말종들아  
수탈, 그 하나로 사는 잡것들아  
날더러 뻥히 지켜보란 말이나  
난 평생 북풍한설이나 씨다 뉘질란다  
북향하여 나는 평생 이렇게 살다 갈란다



수덕사 여래탑

## 여래탑돌이

소설<sup>소설</sup> 절기에 눈이 한 길 이상 쌓였다  
마음은 얼어터지고 살아가는 일도 막막하기만 하다  
밭 일궈 만든 최소한의 식량이 바닥나는 겨울,  
수덕사 여래탑 둥글게 길 열어  
새벽에서 다시 새벽까지 길을 낸다

고려, 그 까마득한 지경에서부터 이 길을 걸어와  
마침내 뭉쳐 빛은 광활한 허공,  
지금은 한겨울 늘 눈송이紛紛하지만  
동지 가고 새해가 열리는 새해 새 날이다  
살아서 만나는 새 삶의 길, 새 길이다 새 꿈이다

이 길은 여늬 길이 아니다 수덕사 산문 깨쳐  
성불하는 수덕사 여래탑돌이다 부처의 길이다

## 저한당의 달

내 마음 설레라  
저한당 달 떠오르면  
딩그렇게 덩그렇게 달뜨면

장부출가생불환 丈夫出家生不還이라  
결연히 내던진  
영혼도 떠오른다



충의사 저한당

## 만공탑 눈빛

정혜사 비구니들의 순정한 눈빛,  
오백 명 천 명 비구니들의 한결같은 눈빛,  
한 번만 한 번만 더 쳐다보려는  
바라보다가 애끊어 간절한, 간절한,  
간절한 몸부림의 불심 타올라

산중 눈망울의 응고체, 만공탑 눈빛



수덕사 만공탑

## 관작리 동학혁명기념비의 노래

일어나라 조선нат 곡괭이 쇠스랑이여  
일어서거라 절굿대 몽둥이 빨래방망이여  
우리가 어디 우리만 사느냐  
살갓 짓물러터지고 등가죽 벗겨지면서  
무릎 꺾이고 가슴 멎들며 묵묵히 살아온 게  
어디 우리만 살려고 그런 것이냐  
일어서라 우리의 어린 것들, 저 불쌍한 것들  
쌔근쌔근 단잠에 빠진 어린 것들까지  
기름 짜대려는 세력을 부수라  
일어서라 이 땅의 모든 흙부스러기여  
더 이상 수탈을 용인해서는 안 된다 일어서라  
일어나 동학 깃발 아래 자유 하라  
동학의 푸른 깃발 아래 새 꿈을 꾸라



예산읍 관작리의 동학혁명기념비

## 예산 옛이야기 축제

아버지가 계셨던가  
어머니가 계시긴 하였던가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나를 보시긴 하였던가  
외조부모가 나를 안기는 하셨던가  
장형이 나를 껴안긴 하였던가  
어디로부터가 생은 오가고

대흥 봉수산 산 메아리 울려라  
해마다 대흥 의좋은 형제비 주변에서 울리는  
이야기의 이야기들이  
으레 영원 꿈을 몰고 오는  
아버지 어머니 할아버지 할머니를 뵈는  
예산 옛이야기 축제



〈예산옛이야기축제〉에서 지게지기를 체험 중인 한 외국인



충렬사 전경

## 충렬사 목숨

한 목숨 태워

올리는 공양

한밤중에도

그 목숨 살아 빛나는

너는 내 사랑

## 대흥 척화비 옆에서



대흥리 척화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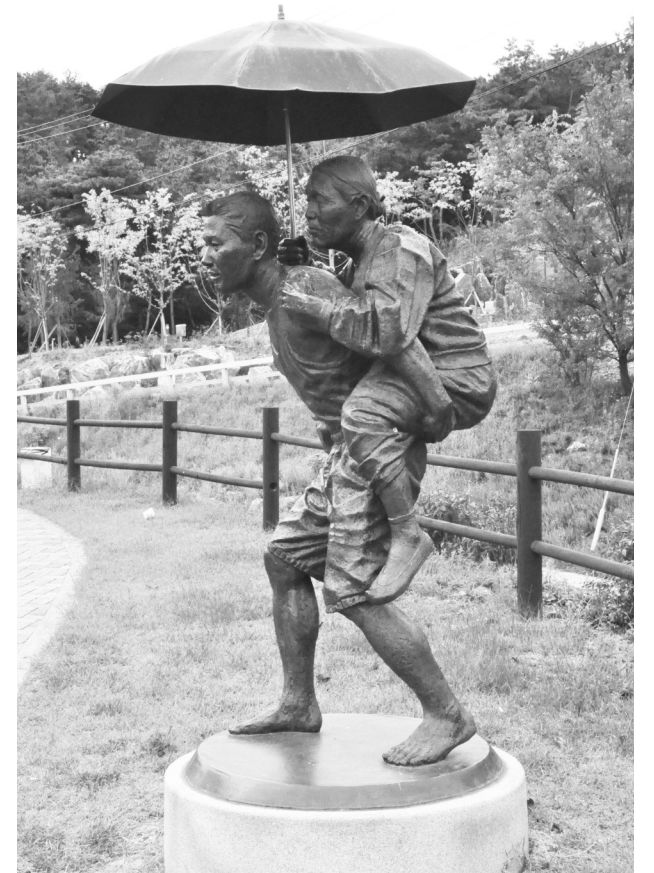
여북하면 흥선 대원군이 좀체 몸 뜰 줄 모를까  
어느새 대한大寒이 가고 입춘  
겨울 눈 녹아 곧 우수 지나 종달이 뜨는데  
임존성 할아버지들 혼령 떠도는 대흥 골짜기에  
'서양오랑캐가 침범하였는데 화친을 주장하면 나라를 팔아먹는 거다'  
화친 대신 싸우라는 척화비 툭툭 두드리며  
여북하면 흥선 대원군이 신새벽 여길 오실까

난 亂 치는 화폭 집어던지고 눈 부라리며 달려와서는  
싸워, 백성이 뭉쳐 싸우는 길밖에 없다며  
다시 대한이 오기까지 꾀꿉이 서서  
여북하면 흥선 대원군이 좀체 몸 뜰 줄 모를까

## 예산조각공원의 별애기

온기야 심장 열기 수천 배도 더 된다네  
정열이야 용광로 불빛 수만 배도 더 된다네  
몸 부숴 내가 여기에 서 있는 것은  
나를 어루만지는 폭풍 탓이네  
나를 보듬어주는 격렬한 풀무불 탓이네  
한 번 쳐다만 봤을 뿐인데  
영혼까지 산산이 부서져  
부서진 채 산별에 서서 별애기 된다네

노대식 작 <귀로>



## 새벽이 산다

- 광시고을 <삼정효연수원>

가 보아라, 삼정효연수원엔 늘 새벽이 사느니라  
광시 산골의 북소리 청천을 휘감아  
햇살 더욱 빛나는 예당호 은빛 물살 출렁이며  
예산의 정기 이어받은 예산 아이들 키우는 눈망을  
정신이란 효에서 비롯되는 거란다 불굴의 기백이란  
효에서 발원하여 새 역사를 이뤄가는 거란다  
아이가 자라 나이 먹고 늙어 죽을 때까지  
부지런히 땀 흘리며 사는 삶이 효란다  
웃어른 잘 섬기는 일이 반드시 잘 사는 첩경이란다  
보아라 효 물살 우렁차게 한반도를 울리는  
가 보아라, 삼정효연수원엔 늘 새벽이 사느니라



예산군 광시면 <삼정효연수원> 전경

## 대흥 상중리 천년 느티나무는

귀 기울이면 예당호 붕어 떼 파닥거린다  
뿌리 내리지 못하는 떠돌이들의 곤한 낮잠이  
고려국의 창건과 조선의 붕괴를 목격한 바람 마을에서  
몸 일으켜 차령산맥 휘돌아  
기름진 예당뜰 업어 키우며 하는 말  
목숨이여, 불쌍한 줄 알아라  
살아생전 만나는 옆자리를 하늘로 섬겨라  
공경의 언어를 눈물 짓는 이에게 바쳐라  
수땀에서 불쑥불쑥 터져 나오는 외마디 소리들  
귀 기울이면 예당호 밀어 들려준다



상중리 느티나무

## 황새의 춤

취 봐, 춤을 취 봐 그 큰 날갯짓 사뿐히  
대술 곁곡리에서 더덩실 춤 취 봐  
딸랑 떨어뜨린 입석 번쩍 들어올려  
어화 둥둥둥둥 내 사랑 어화 둥둥 내 사랑  
칠월칠석날 깽매기 장구 치며 하늘에서 춤 취봐  
동네 새암가 돌며 설렁설렁 부채 부치는 아낙이  
등에 엮은 아이 얼리며 콧노래 부르는  
산 깊은 대술고을 눈물들아  
살아가는 일이 힘겹고 서러워도  
춤 취 봐, 돌멩이 시름 잊고 흥겨운 춤 취 봐



예산군 대술면 황새서식지 표지석

## 예산성당 참탐의 후광

신기한 말하노니, 신<sup>神</sup>의 존재를 깨달으라  
그 어떤 한계란 없다 신의 존재를 믿고  
신의 존재를 인정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과거와 미래가 현재와 공존하고  
그 어떤 기적이라도 아무렇지 않게 일어날 수 있는  
신비를 증언하는 붉은 벽돌 한 장 한 장  
조선 신부의 손끝에서 빛나는데 누가 입맞추나  
쓰러린 굴형길 달려와서도 쓰러져 묵주 들어  
기도 올리는 가녀린 입술에 입맞추며  
신선한 빛 발하는 예산성당 참탐의 후광



## 예산 분례숲길

찬바람 일어 더위 한풀 꺾인 숲에서  
황소 눈망을 부비며 젊은 아낙이 걷는다  
정 없이 노름꾼 후처로 살다 겁탈 당하고는 미친  
분례, 이 땅의 모진 목숨이  
목숨들 끌어모아 애달피 속울음 우는 여기  
힘 센 자만이 살아남는 삭막한 정글이니  
누이야 설위 말거라  
익모초 생애의 쑥굴형도 결국 사라지는 거란다  
피 토하며 사는 인생이나 호화찬란한 고대광실 인생이나  
한날 물거품으로 사라지는 거란다  
누이야 안타까운 누이야  
쓸쓸한 누이의 길이자 나의 길 가는  
칼바람도 함께 가는 길, 분례숲길이야



분례숲길 입구

예산의 문화산수화

# 3

## 여사울 성지



## 가야산 가야봉

가야봉 바위가 완화삼 저고리를 입고 있다  
가야봉 바위가 꽃분홍 마고자를 입고 있다  
그를 아는지 멧새들 사뿐히 내려와 앉는데

여인이라면 심심산골의 가야봉 여인  
사내라면 바위 가슴 가진 가야봉 사내  
세상 콧김조차 모르고 정인情人과 오롯이 등불 켜는

사모의 물감 토해내는 가야산 가야봉



가야봉 원경(사진 출처 : 다음블로그 <풍경의 그 깊이 속으로>)



신암의 여서울 성지



## 여서울 성지

나는 한 평생을 지극히 평범하게 살았다  
나는 내가 있는 줄조차 모르고 살았던 남자다

어느 날 싹둑, 모가지 잘린 그날 이후  
내가 태어나고 자란 이 터에서  
천주<sup>天主</sup> 안에서 이룩하고자 한 평등한 신앙공동체,  
천주 안에서 만들어가고자 한 나라가 움텄다

사람들은 나의 생가터를 성지라며 순례하지만  
조금 살펴보면 사람은 누구나 순례의 길 가는 거다

제 삶의 터전에서 누구나 이미 사도<sup>使徒</sup>인 것이다

## 대회리 꿀벌집

- 예산문화원

꿀벌이 어디 제 자신을 위하여 꿀을 따는가  
꼭두새벽 일어나 손으로 쓱쓱 간단히 얼굴 씻고는  
숫구쳐 오른 금오산줄기 넘어  
폭우에 가녀린 몸 떨면서도 기어이 꽃술을 찾는  
기어이 꽃술 찾아내어 꿀을 따는  
꿀벌이 어디 제 일가만을 위하여 꿀을 따는가

총총 육각형 방방에 들어찬 새끼 꿀벌들 커가는  
여기 예산읍내 무한천변 대회리에 그런 꿀벌들 산다  
아무도 들어주지 않는 노래일지라도  
쓰리고 아픈 사랑노래 키우며 사는 꿀벌집,  
보라, 꿀 따와 꿀물 내어 생명 키우는 꿀벌집 보라

고향, 살아서 살고 죽어서도 살 고향이다  
한 무리로 한데 모여 사는 꿀벌집이다  
예산의 얼과 문화를 물어와 꿈으로  
예산의 눈물까지 물어와 강한 힘으로 바꿔  
오늘은 대회리 꿀벌집이 새로 태어나는 날  
연년세세 꿀물 퍼 올릴 대회리 꿀벌집의 새날이다

## 일우 김한중 의사 생가의 불길

망한 나라의 백성으로 살기란 죽음보다 못하다  
밀고<sup>密告</sup> 당하여 목숨을 잃는다한들 싸움을 멈출 수는 없는 일,  
저 멀리 닳선 타향의 칼바람 아래  
죽어, 서른여덟 해의 하늘을 베고 끝내 죽어  
망한 나라의 백성으로 죽어 마침내 자유를 쟁취한  
어른이 살아 계신 땅이 있다 집이 있다

바람의 진동은 여기 산 언덕에서부터 퍼져 나간다  
광시고을에서 한라산 백두산 만주별관으로 뻗어 나간다  
신령한 꿈들이 여기서부터 심장에 파고든다

목숨으로 의기를 지킨 영혼이 사는 성지,  
일우 선생 생가에 가면 지금도 불길이 된다



일우 김한중 의사의 생가



호서은행 본점 건물, 시도지정 기념물 제66호

## 호서은행, 조선의 심장이여

일제의 강점에 맞선 열혈 애국조직 태극단이  
 일본 경찰과 교전을 벌인 그 해(1922년)에 태어났네  
 예산 지역 유지들이 힘을 합쳐  
 왜놈 일색의 경제의 틀을 우리 것으로 바꾸자  
 호서湖西의 꿈을 만들자  
 금오산이 떨어서 그 말 들었네  
 무한천도 울면서 눈 부라리며 떨어트네  
 경주에서 마지막으로 조선히랑이가 포획되던 그 해부터  
 오직 예산만이 호서의 동아리로 경제를 지키며 펼쳐가네  
 이름이야 여러 번 바뀌어도 호서은행,  
 삶은 깎여도 뼈야 바꿀 수 있는가  
 예산에서 태어나 예산에서 살아가는 조선의 심장이여

## 가야사 금탑자리

가야산을 통째로 삼켜버린다  
우측으로 원효봉과 가야봉이  
뒤로 석문봉, 좌로 옥양봉이 늘어선  
조선 최대의 명당자리라는 음택 덕분인가  
가야사 보웅전 앞 금탑자리에 누운 남연군이  
가야산 중턱의 평안을 누리고 있다

도굴꾼들의 순간을 견뎌내고  
갈증 나면 상가저수지 산 물 마시다가  
산신령 봉분 앞 너럭바위로 나와서는  
삶의 행간들은 모두 텅 비어 있단다  
쓸쓸히 몸 뒤척이는 가야사 금탑자리

## 절골 상가리 윗산소

덕산 고을 가야산 턱 절골에 닿아 있다  
왕을 배출할 명당이라는 윗산소의 주인은  
가야사지 대웅전 정중앙에 잠들어 계신  
대한제국의 황제 두 분의 친 할아버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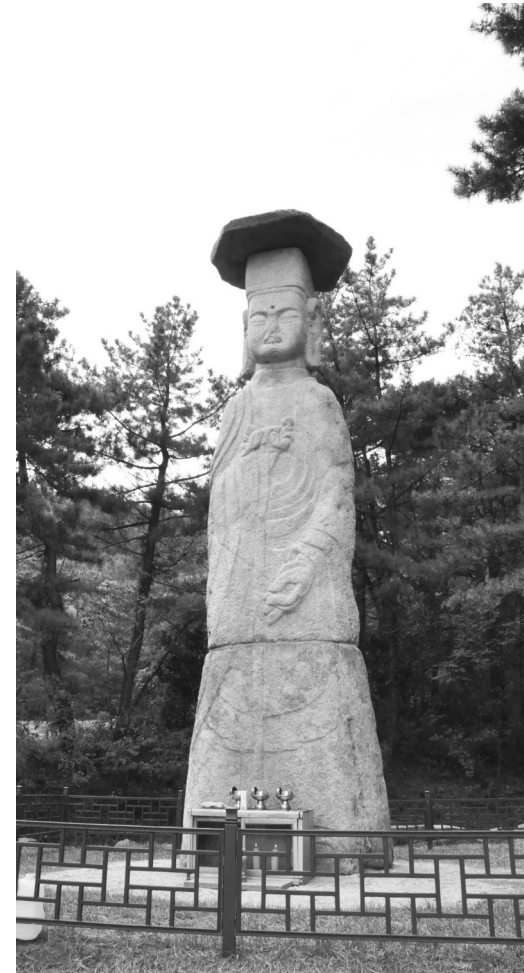
나라를 호령하던 대원군이 부복하여 절 올리고  
면례길 타고 온 나쁜들 상여까지  
이제는 옆에서 시립하여 윗산소를 지키는  
까까머리 시절에 소풍오던 남연군 묘

\*상가리 : 충남 예산군 덕산면 가야산 아래 동네 이름  
사진은 상가리에 있는 남연군 묘



## 삼교 석조보살입상의 영겁

그렇다면 수암산마을 동맥을 담았으리라  
덕숭산과 가야산 물반이 덕산천도 담았으리라  
소리 없이 와서 소리 없이 사라져 가는  
가슴마다 아픔은 휘몰아쳤으리라  
오도가도 않고 한 자리 계신 걸로 보아  
영겁永劫토록 예서 모든 흐름들 끌어안을 거라  
힘없는 백성이 올리는 기도 이루실 거라  
아픈 사연들 말없이 들어 주시며  
모든 액운을 혼자 막아 내시고는  
수암산 이 산중턱에 평화로운 터전을 펼치실 거라  
다 사라져도 변함없이 소원 들어주실 거라



## 충의사 장승

산 채로 서서 죽어  
응고된 수액 내어 눈알 튀어 올리고  
협상국은 빼드렁니로  
북풍 견뎌내다가 굳어버려  
수만 번 정 맞은 몸으로 불을 켜는 거라면  
한 생애의 갈무리,  
시신의 염습은 새 촛대에 불 붙이는 일이다  
아직도 충의사 초입에서  
간 세월 천둥소리 모아 혼불 켜  
무골충 나의 등신불



충의사 입구의 장승

## 임존성 청수에 뜬 반달

임존성 산정에서 솟구치는 청수에 반달이 뜨면  
백제 할아버지들의 부러진 칼이  
처참하게 몸 베이고 베여 부서진 처절한 성벽에서  
뼈 삭고 분루에 젖은 증오의 부싯돌 친다

봉수산 아래 예산 광시의 휘황한 육간들은  
지키지 못하였으나  
끝끝내 항복하지 않은 의기 뭉쳐  
청수 저리 푸르게 솟고, 청수 저리 칼 물고는  
꿈일지라도 섬뜩한 날 세우는 불꽃들

마지막 백제의 시원<sup>始原</sup>의 고향에서  
처절하게 죽어 썩은 생애가  
혼돈의 내 혼을 가르며  
광시 뜰 논두렁 지나 불꽃 타고 백제를 밝히는  
임존성 산정에서 솟구치는 청수에 떠오르는 반달



임존성 청수

## 오천리 도공의 생애

가파른 산길의 초행길 저런, 벌써 길이 끝나 있다  
비좁은 산길 위태하게 차 돌려 나와 뒤를 돌아보자  
산안개 속 타원형의 술잔이 생성된다  
기억해 낼 수 없는, 기억하고 싶지 않은 입술이  
켜켜이 배어 있어 누구의 입술인지 살필 수 없지만  
헤어진다는 상상을 할 수 없던 입술과 헤어진 지 이미 오래  
슬픈 일은 빨리 오고 상처는 깊고 길게 이어진다면 쨍그렁 술잔 부딪친다  
순간 영혼이 뜬다, 눈으로 본 다음 귀로 확인하면서  
서서히 혀로 음미하는 몸을 담았던 실체인 영혼, 사실

화구火口의 고열에서 몸 익혀 살아가는  
생은 얼마나 살고 살아져서야 끝나는 참혹한 과정이라, 사랑이란  
게다가 사랑이란 얼마나 메마른 고사목이라  
섭씨 천삼백 도의 화염에 단련된 생이 아니라면  
씩어 천년을 견뎌온 무딘 생이 아니라면  
삶이 될 수 없다 혹 삶이 아니라면 초행길 어찌 쨍그렁 어깨 맞대랴  
영감으로 환청굽는 오천리 도공陶工의 생애가 잔을 올린다

## 약수전

하늘만 빼꼼히 보이는 곳이란다  
옛날에는 우물 같은 이런 곳이 집이었다  
무서리 내린 들판을 지나  
이 동굴에서 너의 숨소리를 듣는다  
세상 그 어떤 음악보다 더 달콤하고 좋은 숨소리가  
일출과 일몰이 어우러져 빛어내는  
빛을 내뿜으며 하늘 한복판에 향기를 심는다  
이 동굴에서 일어나 몸단장하고  
찬 공기 마시며 집 나서는 너를 보며  
여기서 내가 있는 하늘에 코를 내미는 거란다  
본 지 오래 되었는데  
키 크고 가슴도 넓어졌느냐  
네가 있는 나라의 하늘은 맑은 것이냐

\*약수전 : 덕산면 상가리 마을을 지칭함

아무 것도 안 보이고 너만 보이는 지층동굴에서  
먼 나라로 떠나간  
가엾은 네 어깨에게  
네 어깨에게 내가 살고 있음을 말해다오  
울지 말고 네 어깨는 내 어깨라고 말해다오

옥양봉에서 바라본 약수전 전경



(사진 출처 : 다음블로그 <아마추어무선사 h15xp의 산행일지>)

## 대치천 고라니

갈 홍수에 폐허가 된  
산비탈 봉천지기 물웅덩이에  
갈색 빛깔의 고라니 모자가 죽어 있다  
갈대꽃이  
차가운 갈바람에 일제히 몸 뉘여  
작은 봉분으로 사는데 어디에 갔나  
한동안 말같이 뛰던 숫 고라니,  
새끼가 웅덩이 빠지자 뒤쫓아 빠졌을 어미 고라니를  
목 놓아 부르다 부르다가

구덩이 주위에  
허방다리 흔드는 울음 남겨놓고  
목숨 잃고  
잃은 목숨 달고 살아갈  
폐허의 젊은 숫 고라니는

대치천 전경



## 금오산 상사화

당신을 기다린 하루의 새벽  
내 마음의 침실에 비로드 붉은 가운 입혀  
촛불 켜 놓고  
입술, 그 싱싱한 떨림에 취한 적 있다  
죽이고 싶도록 흰 목을 가진  
자주 그 긴 목을 높이 뽑아 올리는 당신을  
보는 것만으로 까무라쳐  
여름밤은 짧고  
나는 으레 모가지만 있는 짐승,  
산 아래 주막의 폐부에서 꺼내 읽는  
꿈 읽는 황홀함에 빠져  
꽃잎에 철철 넘치는 독배를 든다



금오산 상사화

## 광시 엽병굴

봉수산정 엽병굴 덮은 운무에 묻혀  
깊은 산중 굴속에서 임존성 복신군사가 말을 한다  
천사백 년만에 입술 열어  
설렘이라는 두근거리는 가슴을 산정에 흠뻑린다  
본디 빛나는 섬광이자  
두 번 다시 할 수 없는 삶이라는 여행에서  
상처와 상처에서 피는 꽃들도  
봄 기지개 켜며 나른한 광시 엽병굴

## 일엽스님 다비식

백제 고을 수덕도령과 수덕낭자가 불붙인 도화선  
화염에 출렁거리는 세상 줄에 붙어  
덕숭산 기슭 깊은 산허리 이르러 마침내 폭발한다

그리운 사람아  
지금도 그리워, 그리운 사람아  
대웅전 단청자락 타고 번지는 독음이 풍경을 돌아  
불구덩이 파헤치며 오롯이 살점으로  
가장 깊은 세상 중심서 치솟는다

저물녘까지 대웅전 자락에 연기로 타는  
깨달음의 깨달음으로 환생하는 목탁 두드리며  
수덕 도량의 불덩어리 시승詩僧이 중생을 꺼안는다

## 고운봉 선생 노래비

어질어질 어질증 걸린 몸 데리고 사는 일,  
 어질병이 지랄병 된다는데 이거 보통 일 아니다  
 현기증이 나서  
 자꾸 어지러운데 좌·우파 씹박질에다  
 치솟는 고물가와 헛갈리는 팍송이 판치는 와중에  
 ‘울려고 내가 왔던가 웃으려고 왔던가’  
 선창의 첫 소절대로  
 노래 한 소절 부르고 노래 속으로 들어간다

울려고 내가 왔던가 웃으려고 왔던가  
 비린내 나는 부뚫가에 이슬 맺힌 백일홍  
 그대와 돌이서 꽃씨를 심던 그날 밤  
 지금은 어디로 갔나 찬비만 내린다.

울려고 내가 왔던가 웃으려고 왔던가  
 물어본다고 다시 오랴 사나이의 첫 순정  
 그대와 돌이서 희망에 울던 항구를  
 웃으며 돌아가려다 물새야 우지마라

어질어질 어지러워 비틀대며 로타리 돌다가도  
 고운봉 선생이 부른 노래가 귓전을 때려  
 덕산온천에 몸 담그고 지친 나그네 발길 붙잡는다



고운봉 선생 노래비

## 대술야영지

이름 없는 개울가에 흘러드는 물살이라도  
풀썩의 앓은뱅이 꽃이거나  
손등 터진 어머니 행주치마라도  
먼저 가신 부모 산소에 얹드려 우는 눈물이며  
고생 시킨 가족 안쓰러워 잠 못 드는 불면증이라도  
십자가 침탑은 저리 높게 빛나건만  
살아갈수록 죄업 늘리는 통증에 참회의 기도는 길고  
허수아비 두 팔 벌린 틈새 번지는  
작은 세모래 쌓여가는 여기서 내 삶을  
단 한 번 길 떠나 온  
이름 모를 꽃을 바라보는 대술야영지라도



대술야영지 전경

## 신례원역

전국 최대의 비닐하우스 단지가 조성된 신례원  
장항선 열차가 천안온양 도고역을 지나자마자 닿는  
신례원에 들어서면 먼저 농부를 만난다  
호미와 퇴비를 아끼는 손길들이 트랙터 몰고 내달는  
들길마다 거름 진 새벽 시간들이 내려앉는다

젊은이들은 이어폰을 귀에 꽂고 일터로 가고  
중년의 과수매은 트로트 들으며 트럭 몰고 집 나선다  
매일 우체국과 농협에 택배로 나가는 채소가  
신례원을 전국 최고의 농산품 생산단지로 만드는데

문득 그리워라 땀 흘리며 살아가는 터전,  
이마 향기로운 이들이 오르고 내리는 신례원역



2007년의 신례원역 플랫폼

## 태봉산 태실비를 쓰다

제 아무리 뜨거운 사랑이라도 재, 한줌 재 아니라  
불 꺼진 화로의 온기 잃은 재다, 탄생이란  
신양고을 태봉산 태실을 기록한 태실비胎室碑다  
저 태실비의 주인인 어린 아기 탄생이  
무지막지한 포크레인 삽날에 강제로 뽑혀 나뒹굴다가  
예산읍내 대회리 예산문화원 뜰에 옮겨 세워진  
태실비로만 존재하는 재다, 미움이란  
제 아무리 진한 미움이라도 재다  
사랑이 재가 되듯이 탄생과 죽음이란  
재의 환원이며 태실비의 각자刻字 또한 재 아니라



예산문화원 앞의 태실비

## 삼교천 독새풀

봄 논의 아가야  
정월대보름 지불놀이에 다 탄  
논배미 입안에서 크는 거란다  
북극성 별빛을 가늠하며  
밤바다 건너 온  
동해, 그 망망한 파도가 솟구쳐 오른 거란다  
달귀진 함석지붕 땡볕을  
씹어 삼켜 소화시키는 버팀목,  
아가, 봄 아가야

# 4

## 삼교천 붉은 물살



## 수덕여관 암각화

밤의 고요가 몰려와 고요를 내린다  
파리에서 잡혀와 형무소살이 마친 고암 선생이 그린  
덕숭산 너럭바위 암각화를 껴안는다

고암의 병수발에 눈물 마를 새 없던 여인을 두고  
몸이 호전되자 다시 훌쩍 파리로 떠난 암각화여  
대체 운명이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모두 다 죽고 없는데 시누대 앞뜰 바위만 살아  
세상이 토하는 숨결 잠재우는 수덕여관 암각화



수덕여관 앞뜰 암각화

## 법륜사 수레바퀴

요사채에서 나오는 젊은 보살이 말한다  
저는, 죽으려 하다가 돌절 부처님께 정성 올린 뒤로  
삽니다 이렇게 다시 삽니다

코 앞 세심천 흘러가는 냇물이 알몸으로  
수레바퀴 미는 법륜사 바위굴  
법륜사 도랑에는 그런 사람들 산다

영험한 부처님이 사람을 대한다며  
합장하는 보살이 국화차를 끓여 내오며 묻는다

- 고려 조 마애불상이 계신 토굴의 부처님을 모시지요  
여긴 영험하고 평안해요  
자기 자신을 수행함으로 진리를 껴안지요  
비가 오면 그 비 다 맞으며



삼교읍에 위치한 법륜사

중생을 염려하는 마애불이 자애로운 미소로  
포근히 품어주는 걸 느껴보지 않으실래요  
서역만리 부처님이 현신現身하여 사는  
여긴 영험하고 평안해요 보살님

젊은 보살이 내온 국화차 향 요사채 아래  
아닌 게 아니라 달마조사가  
진리의 수레를 밀면서 올라오고 계시다  
서역만리 정토를 거쳐 땀 뻘뻘 올라오는 법륜사

## 고덕 구만천 백일홍

구만뜰 젖줄인 구만천변에서 울고 있다  
어찌다가 그대와 나  
심장의 도화선이 불붙어  
그리워 그리워하면서 살아야 하는가  
평생 떨며 오직 속살로  
부끄러운 속살로 떨며  
심혼의 바다를 헤매야 하는가  
여름 갈 겨울이 오가고 영면에 들어서야  
대심방에 홀로 피어 간절히  
애모의 만가 부르며  
구만뜰 젖줄인 구만천에 백일홍 핀다

## 백석골 도산서원

새벽 기침하면서  
포저 선생이 떨귀 놓으시는  
해맑은 눈동자 하나

신양 백석골 도산서원



신양리 백석골 도산서원 대문

\*포저 : 조익 선생의 아호

## 예산대교 禮山大橋

별빛 안고 흐르는 예산대교는 그냥 다리가 아니다

산성리 산성이 제 너울 벗으며 아지랑이에 엉킬 때  
잠 없는 몸으로 달려가 길을 연다  
여기서부터 마파람 불어 예산 사과나무 물 오른다

예산사람들 새벽잠 깨어 시장으로 달려가고  
새봄 초산할 아낙 서둘러 읍내 달릴 때 길이 되어  
맑은 눈빛 휘파람 부는 예산사람이다  
태어나 속 폭신 찌고 찌어도 무던히 참으며  
저주며 사는 삶, 일부러 저주고도 웃는  
가슴 뜨거운 예산사람 웃음이다

더러 사람들이 서둘러 대처로 떠나도 홀로 남아



제 등솔기에 향기 키우는 겨울 과수원이  
슬슬해할 때마다 쏜살같이 달려가 친구로 밤새우다가  
못내 그대로 화석이 되어 사는 숨길이다



추사고택

## 추사 기념관의 빙화氷花

아내를 먼저 보내고 참척의 슬픔까지 겪은 늙은이가  
부모 임종을 지키지 못하고  
스스로조차 고향에서 운명하지 못한 늙은이가  
그래도 끈질기게 나를 심고 붓을 심고 죽음을 심어  
제주도에서, 과천에서, 여기 예산에서  
붓대 하나 부여잡고 살아온 사람  
그 사람 추사, 집념의 길을 걸어온  
그러나 한없이 고적하였던 추사, 외로운 추사는

쓸쓸하고 고독할 때마다 연애하였더란다  
나 자신을 보며 나 자신과 독하게 연애하였더란다

기어이기어이 전율하며 피워낸 용궁리 추사의 빙화

## 덕산 원효봉 계곡의 달

내가 그대를 부를 때는, 부를 때는, 부를 때는  
원효봉 계곡의 달은 늘 만월이었다  
원효대사가 요석공주를 아내라 부른 그 밤의 달처럼  
달빛 빛나는 그대가 밤이었다, 밤이었다  
월견초 흐드러지게 핀 팔월이었다, 그 밤에  
부웅—봉 뱃고동 길게 울며 계곡으로  
원효봉 계곡으로 천천 년 달을 실은 배 들고  
스스럼없이 나는 아내 아닌 그대를 아내라 불렀다  
야유에 거리낌 없이 아내라 불렀다  
그 날부터 머리를 길게 기르기 시작하여  
물레방앗간에서 옥비녀 풀어 끝내 그대를 안았다  
선달 그믐밤에도 원효봉 계곡의 달은 만월이다  
속으로만 부르고 불러 까맣게 그을음 낀



내가 그대를 부를 때는, 간절히 부를 때는  
선달 그믐밤에도 덕산 원효봉 계곡의 달은 만월이다

## 옥계계곡 세이암洗耳巖

귀 씻어 주는 바위를 좀 보게나  
귀 씻어 주는 바위를 좀 보게나  
최고운 선생이 귀 씻은  
가야산 옥계계곡의 청정한 바위 좀 보게나  
노상 계곡물에 몸 씻은 바위가  
가장 순결한 이의 귀를 씻어주며 정토를 만드네

헛된 세월 쫓지 말고 곧은 뜻 하나 품으라  
맑고 도타운 정 잊지 말아라  
물 한 모금이라도 나눠 마시며 정갈하게 살라

투박한 손 들어 깨끗이 씻어 주는  
생명바위를 좀 보게나  
햇살 열어 주는 계곡의 미륵 좀 보게나



옥계계곡 입구 세이암

## 덕산향교

글 읽고 배우는 기쁨을 어디에 견주나  
가야골 조선 젊은이들이 굳세게  
머리를 도끼 삼아 배우고 돌진하던 덕산 땅  
이 싱싱한 가야산 배움터에  
장정들이 살고 있다. 늙지 않는 영혼으로 곳곳이  
산정에 올라 글 읽고 있다  
오직 글 읽고 쓰는데서 뼈 울리며  
젊은이들의 펄펄 뛰는 사타구니 있다



덕산향교 전경

## 대흥향교 은행나무

무겁게 쉬는 한숨은 버려라  
깊은 산중 울무에 걸린 산짐승 모가지 보며  
어둠이 물고 있는 어둠을 버려라  
셋눈 뜨는 새벽이 달려 나가  
산골짜기 고향에서 보내고 맞는 죽음이란 것  
겨우내 별거벗은 몸이란 것  
기별 없이 오가는 생명의 소멸이라는 것  
말하지 말라 아무 말 말라  
굳이 연모는 더더구나 꺼내지 말라  
앞막에 부서져 내리는 수만 개의 행성들이  
부서지는 저 눈부신 부서짐의 생애  
부서져 내리는 소망을 달고  
죽음 그 너머에서 수 세기를 밝히는 수액의  
형형한 눈빛과 그 목숨을 읽어라



대흥향교 앞 은행나무

겨우내 별거벗은 몸으로 떨며  
지령地靈이 뭉쳐 큰 눈물 무게로 서 있는  
대흥의 목신木神, 대흥향교 은행나무

## 삼교천 붉은 물살

목을 눌러, 온 힘을 다하여  
희디 흰 젓가슴 맞닿은 목을 눌러  
꽃산의 가을 단풍 든 입술을, 바르르 떠는  
붉은 떨림의 웃음을 들었더니라

장항선 달리는 열차가 그 때 목젓을 막았으므로  
의당 숨 막혀 절명하려는 판에  
벌컥벌컥 다시 벌컥벌컥 막걸리 쟁여  
꽃산 아래 쓸쓸히 흩어져버렸더니라

그 가을 지나, 또 겨울 지나  
꾸룩꾸룩 미친 산비둘기 온통 봄산에서 울어  
부를 수 없는 이름 하나가  
때죽나무 흰 꽃그늘에 여름을 달고 있더니라

희디흰 목 누르는 삼교천 붉은 물살이

삼교천의 일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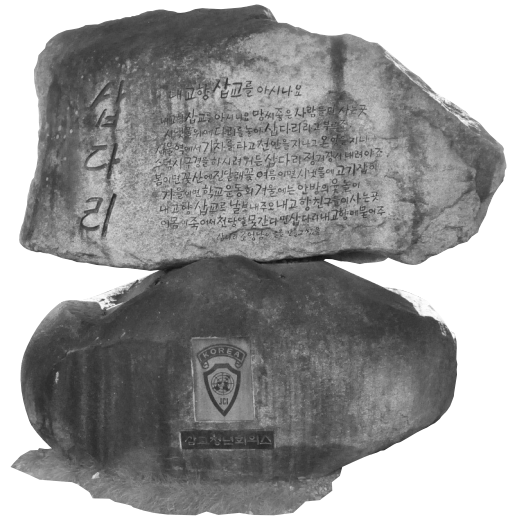
## 대흥 대울리 밤이마을

예닐곱 마리의 꿩이 언덕 아래 풀숲에 모여 있다  
밤 마실 왔다 간 노루의 온기 쫓아  
눈 발자국 찍으며 대흥고을 대울리에 내려  
밤이 마을 사람들이 밟고 다닌 논밭 둔덕에서  
오직 저희들끼리 밀담을 나눈다  
비밀한 언약, 저 농익은 밀주 없이 어찌 겨울 날까  
비밀한 입술, 저 온기 없이 어찌 겨울을 버텨낼까  
등허리 벗겨지는 지게 짐 부리고 나서  
힘껏 껴안다가 등허리 빼 허영게 벗기는 힘으로  
밤 이슬토록 산바람 씌며 명랑하게  
포용하며 들일 살피는 동네, 대울리 밤이마을

## 삼다리 노래비

작은 키에 노래 잘하는 가수 조영남  
- 내 고향 삼교를 아시나요,

굵은 뿔테 안경에다 호쾌한 웃음 터트리며  
힘들고 어렵다고 주저앉지 말라며  
하루도 쉬지 않고 노래 들려주는  
삼다리 돌의 노래



조영남 노래비

## 대흥 동헌

부흥국 꿈들이 내려와 사는 신전<sup>神殿</sup>  
임존성의 동공들 모여 현청에 등불 매달던 손끝에  
불타며, 죽어 나자빠지며  
백제, 그 울혈의 통곡을 마시며 죽어가는 저 신전은  
몇 번을 불타 없어져서야 올 것인가  
죽어, 나는 몇 번을 죽고 나서야 환생할 것인가  
봉수산을 거느린 죄업 때문에  
삶을 허랑방탕한 몫쓸 죄업 때문에  
산골짜기 슬픈 산계곡마다 눈, 눈, 눈 맞추며  
숨어서 나직이 불러보는 대흥현청의 신전



대흥동원 전경

## 마전 볍씨

남자머리 비녀 한 번 매만진 뒤 치마 걷어 올리고 속곳 주머니에서 꼬깃꼬깃한 지폐 한 장 꺼내어 옆에 서 있는 코흘리개 손자 손에 쥐어 주며 어깨 두드려 주던 이빨 빠진 할머니보다 그 손자가 먼저 암으로 세상을 떴을 때 할머니는 자리에서 일어나질 못했다

그 사이 손자네 집 이층집에 세들어 살던 늙수그레한 남자가 소리가 병아리나귀채듯 손자머리와 손자의 두 아이까지 수하로 거둬들였다 식음 전폐한 할머니가 손자 따라 황천길 떠나자 안방 아랫목에서 물 뿌려 몸 통통 불은 벗가마

속 마전 볍씨가 일제히 아귀 튼다 집집마다 분주한 황토 손길 아래 무논으로 하얀 분바르고 새 살림 내어 제급 난 수많은 종자들이 저마다 할머니 가르마 곧은 길 타고 봄을 계워낸다 산절레 돌는 봄 언덕 할머니가 서 있던 산언덕에 이젠 할머니가 된 아낙이 어린 손자 호주머니에 낱고 오래된 선반 위의 먼지 같은 지폐를 찢어주며 얼마 후면 또 떠나갈 우리의 생명을 건넨다

\*마전 : 광시면 서초정리에 있는 밭, 이곳이 예전에 말을 먹이던 목초지였다.

## 덕산초등학교 광현관

아장아장 걸음마 겨우 떴 눈망울이다  
초롱초롱 빛나는 눈망울이 종알종알 글 배우다가  
모르게, 아무도 모르게  
부리부리한 눈 치켜뜬 채 날아오르는 송골매 만난다

갓 입학한 소년 윤봉길의 눈매 또렷한 꿈,  
세계를 놀라게 한 열혈열사의 꿈이 익어가던 곳에  
다시 시퍼런 의기의 물줄기가 내려친다  
도중도 가슴에 서해바다 출렁거린다

새로워져라 열심히 배우고 도전하라  
매서운 눈빛 키워 나라를 살리는 인물이 되거라

백년 넘도록 큰 기둥으로 서 계신 윤의사가  
여전히 혼불 피워 가르치는 터전,  
보아라, 광현관 가득 해맑은 눈빛들 빛난다



덕산초등학교 광현관 전경

## 웃골 도둑고양이

- 한 시인의 독백

아주 조금, 한 움큼도 안 되는 아주 조금이다  
담장을 넘기는 한다면  
단 한 차례도 도적질한 적 없다  
버리는 생선 가시나 밥풀떼기로 배를 채울 뿐  
무엇을 더 탐하지 않는다  
좋은 집을 원한 적도 없고  
어디 한군데 정착하는 안락함을 바라지도 않는다  
갠 날 비 오는 날 늘 울며 산다  
졸음이 눈시울 덮으면  
집 모퉁이 풀밭에서 새우잠 자곤 한다

한 번도 올라가지 못한 예배당 십자가 침탑  
저 높은 곳과는 일찍 단절되었는데도  
웃골 도둑고양이란다  
비쩍 마른 몸으로  
가냘픈 울음만으로 연명하며  
편히 먹을 단 한 톨의 양식도 비축해 놓지 않고  
단 한 푼 예금도 갖지 않은 나를  
휘황한 도둑들은 외려 나를 그렇게 부른다

\*웃골: 광시면 서초정리에 있는 골짜기

## 너봉골의 기도

- 나에게 띄우는 편지

삼 시 세끼 밥을 잘 먹게 하시니  
제가 부여받은 저의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시간을 드리는 동안 저의 생명도 드립니다  
제가 갖고 있는 빛나는 모든 것을 드립니다  
대신 저는 저물녘 알몸으로  
알몸조차 황홀하게 너봉골에 쓰러지겠습니다  
껍질까지는 벗겨 가지 마십시오  
저에게도 어린것이 있습니다 초롱한 눈으로  
저만 바라보고 사는 어린것이 있습니다

늘 제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대신 제 생명은 내어 놓은 것이나 같습니다  
화 부리시고 발길질은 하시되  
저를 위하여 기도는 마시고  
부디 탄내 나는 우릿간엔 오지 말아 주십시오

\*너봉골: 응봉면 건지화리

## 덕산 사과나무 이야기

한 남자가 사과나무를 심었네  
산 모퉁이 초막 한 채 지어산 지 삼십여 년 지나  
낳아 키운 자녀들이 대처에 자릴 잡았네  
그 사이 숲을 이룬 사과나무에 묻혀 집이 안 보이네  
마을 일 보던 어느 늦가을 갈길이 끝날 무렵이었네  
무성한 사과나무 가지에 새끼줄 걸고  
남자 그 줄 끝에 매달렸네  
놀란 이웃들이 황망히 그의 장례 치르던 밤  
똑똑 사과나무 눈물 흘리네  
저를 키워준 손길과 헤어지면서부터 시나브로  
폐목으로 변한 가지에 유성이 걸리네  
저를 키워준 따순 손길을  
자기 품에서 고요의 세계로 회귀시켜 준



한 남자가 사과나무를 심었네  
그 사과나무가 이제 한 남자를 심고 있네



예산에서 공주로 넘어가는 차동고개

## 신양리 차동고개

달빛이 구워 빚어내는 솔향기의 전설이  
 당진 대전 간 고속도로 시멘트 발에 점차 사라져 가지만  
 목매기송아지가 뱉어내는 움메움메 소리  
 어미 소가 훔아주는 낮지만 부드러운 음성  
 고갯마루 감나무 작은 가지까지 뒤울안 장독대라  
 무엇 하나 따습고 반갑고 재미나지 않으랴  
 아름다운 삶의 이야기들이 눈처럼 내려 쌓이는  
 신양에서 공주 가는 마흔아홉 굽이 고갯길

## 동암東岩 유택

흙무덤 봉분에 풀은 왜 그리성한지요  
영원 잠에 들지 않고 자주 바깥세상 구경하시는지요  
요로원야화기를 집필하시고  
무려 30권의 문집을 펴내신 조선의 선비,  
그렇지요 실상 우리의 삶은 밤의 이야기, 야화夜話이거나  
슬프고도 고단하게 피는 밤의 꽃, 야화野花 아닌지요  
고관대작도 하셨으나 마음은 늘 자유 분방하셨지요  
태어난 고장 대흥 갈신리에 잠들어 계시다가  
형제고개 넘어 예산읍내로 자주 나오시는지요  
자주 호출해 주시지 않으실는지요  
막사밭 막걸리에 열무김치 한 사발로 밤샘해 보자구요

동암 : 박두세의 아호

# 5

## 덕숭산 진달래



## 자갈들 새벽중소리

자갈들 매우며 새벽중 울리네  
겨우내 불덩어리 몸을 버린 동백이  
이 겨울 실직의 절망 끝에  
대합실 취객이 된 실핏줄 타고  
일어나라 어서 일어나라 새벽중을 깨우네  
환청이 아닌 겨울 새벽에  
겨울 산 걸어 내려온 붉은 동백의 울음들이  
황동 십만 근을 녹여  
칠 년 동안 만들어도 울지 않던 종루에서  
무남독녀 외동딸을 씻물에 녹여 주조한  
천근 무게의 종을 흔들며  
자갈들 매우며 새벽중 울리네

\*자갈들: 예신읍 관적리의 들



## 우계문학비

쓸쓸하고 바쁜 계절 11월 폭설이다  
11월 중순에 온 산야가 눈으로 뒤덮였는데  
평생을 은거하여 조용조용히  
묵암<sup>默庵</sup>, 내가 사는 나의 집에 누웠는데  
그것도, 사십년래와벽산<sup>四十年來臥碧山</sup>인데  
어찌타, 시비하사도인간<sup>是非何事到人間</sup>인가  
시비<sup>詩碑</sup>를 세워 문학을 기린다지만  
나는 생전에 고향 파주를 떠난 적이 없는데다  
연고 없는 예산문예회관은 너무 멀어  
시비<sup>詩碑</sup>로 시비<sup>是非</sup> 걸지 말아라  
멧새 한 마리만 대학자를 찾아 말 건다

우계 : 성훈 선생의 호



## 하평리 논보리

- 이 땅의 농부들에게

언 몸 곳곳이 세워 엄동을 살다가  
어느 한 부분이 아니라 몸 전체로 불쑥 솟는다  
날 춥고 어둡수록 피 뜨거워져  
새파란 촉수 내어  
동토의 동공에 뻗은 뿌리를 달군다  
살얼음판, 동사직전의 한파를 그렇게 견뎌왔다  
심장이 멈추길 수 차례, 엄동설한을 그렇게 견뎌냈다  
복토의 이름으로 목울대 막아  
두 발에 짓밟혀 형체 없이 몸 으깨어져도  
서고서고 또 서고 또 서는 생명이  
모래알에서 조용히 눈뜨며  
성냥골 부수어 휘몰아치는 냉기를 자양분으로  
파르르 땅위에 봄을 몰아와  
급기야 오뉴월엔 누런 보리카락까지 세워 놓는다



\*하평리 : 충남 예산군 삽교읍의 한 동리 이름

## 온천뜰 분수대

단숨에 장정을 삼킬 듯이  
어미 뱀의 몸통을 통과한 물줄기가  
갓 태어난 독사의 독 이빨을 쳐댄다  
독사의 앞니는 이때부터 얼얼한 통증에 시달린다  
알고 보면 독은 통증이다  
살기 위하여 이빨에 구멍을 내 놓고 뽑는  
물이다 솟아오르는 물의 통증이다  
무더위 먹은 사람들이  
보채는 아이들을 품에 안고  
총총 달려와 마시는 것은 실상 독이다  
갈증은 해갈되지만  
터널을 빠져 나와 막 경적 울리며



안개 빗살의 분수를 빠져 나오지만  
훗날 관楸이 될  
슬픔의 혈관을 지우는 온천뜰 분수대

\*온천뜰 : 덕산면 사동리를 말함.

## 모과울 방충망

이층 나의 작은 방 창문에 사는  
방안에 들어오지 못하고 기웃거리기만 하는 친구들아  
모과울 공중에도 실핏줄이 있어  
모과나무 꽃향기의 속살을 붉게 물들여  
대나무 발 맞닿은 오염송과 자목련을 살갓으로  
창문에 코 들이박고 뿜어 올리는

들어오라 모두 들어오라 기웃거리는 친구들아  
스스로 창문을 부수었으므로  
파리 모기 날파리 꽃향기 흠냄새 별무리는 물론이고  
태풍 빗줄기 눈보라와  
새끼 고라니와 산새와 비둘기와 분노와 울분까지  
방안으로 들어와 공급해 주며  
하늘 심방에 촘촘히 더불어 사는

\*모과울: 덕신면 복당리에 모과나무벌이 있었다는 데에서 유래

## 상하리 산안개

산안개에 묻혀 상체만 떠도는  
선산을 쳐다보면 거기, 종잇장처럼 얇은  
몸에 가는 허리가 보인다  
십이 대 할아버지로부터 장형 이래로  
아지랑이에 실려 첫차를 탄  
조카팔아이의 십자가도 보인다  
무단히 허리를 못 써 자살하려다가  
기도 중에 고침 받고 사십 넘어 목회자가 된 무릎과  
성실하여 한 부서의 장이 된 아우와  
살아서 가슴의 반이 잘려 나간  
털복숭이 곰탱이 사내도 짚힌다  
문중 사람들이 바빠 제 각각 삶을 살다가  
몸 달랑 들어 선영이 되는  
산안개의 생애가 내 삶을 메운다

## 덕숭산 진달래

첫 얼굴 꽃술이야  
오래도록 새겨진 이름 하나야  
지금쯤 무얼 하는지 몰라도  
첫 진달래꽃이야  
산턱에 몰려나와 나를 주저앉히는 발작이야  
평생 한 나무 그늘에서  
평생 한 가슴 그리는 떨림이야  
첫 얼굴 눈물이야

\*덕숭산: 충남 예산에 있는 수덕사를 품고 있는 산

## 거무실 바구미

거무실 바구미가 벽을 타고 있다  
한 겨울철에 여름에 만나던 바구미 벽을 탄다  
사람의 집들이  
고립무원의 고도孤島가 되는  
폭설이 내린 거무실 산성 터 돌아  
깨알 같은 글씨 쓰며  
바구미 한 마리가 벽을 오른다  
꼭 식탁 높이만큼의 삶을 올라왔고  
벽이란 드넓은 대지를 가지만  
벽은 미끄러워  
계속 나가지 않으면 추락하는데  
겨울에서 여름으로  
남겨지지 않는 글 쓰며 바구미 벽을 탄다

\*거무실 : 예산군 산성리의 부락명, 일명 검곡



## 당나무들 장복교회

내년에 당신 아들이 교통사고로 죽게 됩니다  
개망나니의 혈통인 망아지들이  
눈 치켜뜨고 엄포 놓으면 대개의 사람들은 이 말에 녹아난다  
십자가 목걸이를 단 신자나 유명인들까지  
단숨에 사람들을 미혹한 것이다  
속칭 법사가 동원되어 곳을 벌이는데  
곳을 하고나서야 마음 편히 생업에 몰두한다는  
학력 불문 직업 불문 남녀 불문 연세 불문의 이 불가사의한 일이  
해맞이에 들뜬 새해 벽두에 일어나  
새해 첫날밤부터 침탑이 알아눅기 시작한다  
수십 년 전 이 마을 곶판에서 무당과 식사를 하였을 뿐인데  
그 뒤로 호되게 앓다 일어났을 때처럼  
시름시름 아파서 매우 간절히 성령을 찾는다



하나님의 영, 진리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이  
죽히 백여 년 수령의 오염송 있는  
대술면 장복교회를 통하여 불처럼 역사하시고  
완악하고 패역하여서 통 말 안 듣는  
한낱 어린 아이인 생을 치유하실 것인데  
이는 오직 아는 이만 아는 깊고 오묘한 비밀이다

\*당나무들 : 대술면 장복리에 있음.

## 송산 가을비에 묻다

폭풍에 꺼져버린 지등<sup>紙燈</sup>에 불 붙인다  
환하게 밝아오는 심중 호수에  
일 년 내내 움터 온 참나무 생가지가  
찌억 짝, 한 가을 생가지 찢는 산소리 풀어 놓는다  
사근사근 삼교천이 밤새 내리는 가을비에 불어나  
잘 익은 벼 살피며 서해바다로 떠나간 뒤  
어디가 끝인지 불분명한 지경에서  
찰나일지라도 불빛 몇 점 빗속에 뜨면  
시간 넘어 송산으로 달린다  
향기로운 살내음 번지던 참나무 산언덕의 설렘이  
백중사리 밀물에 넘실대는지를  
평생 오직 한 여인만 사랑하기를  
지등에 불 밝혀 다시 가을비에 묻는다

\*송산 : 삼교읍 송산리를 말함. 일명 솔미

## 속벌<sup>南田</sup> 가을누에

백로 지나 초승달 뜨면 흙벽돌 누에솥에  
가을 달빛도 같이 스민다  
가을 뽕잎만으로  
갈 햇살만으로는 부르튼 몸 추스르며  
흙 선반에서 허물 벗고 또 벗는 고통을 견딘 후에  
  
달빛이 불어 넣는 침묵의 밤을 건너 와  
선채로 잠들고 입에서 토해내는  
달빛 너울 아래 뽕잎 진 빈 가지에 이슬 내어  
혼곤한 몸으로 짓는 고치의 달빛,  
  
저 가을강의 달빛이 없고서야  
증발해버린 하얀 갈 누에가 없고서야  
갑자기 홀로 된 누님도 이 가을녘  
밤새 몸 야윈 독한 불면을 토해낼 수 있겠는가

## 조실 감응초

두더지의 퇴화된 눈이 내심의 허무를 파고 있다  
앞발이 아니라 두 눈으로 허파 긁고 어둠을 뚫는다  
그에 딸린 혈을 터트려 잠드는  
눈발을 대신 갈아엎으며 일거리를 채근해댄다  
몸 어디선가 선혈이 버드나무 물웅덩이에 고이면  
망각하였던 사련(邪戀)의 조각들 뭉쳐 올려  
달고 있는 가녀린 잎새에서  
광야의 어둠 속을 달려가던 기적을 쳐다본다  
희미하여 도저히 앞이 보이지 않는 눈으로라도  
거친 들의 거친 메아리를 보았다면  
그 광야의 만나나 메추라기의 기적을 보았다면  
미모사, 건드리면 단번에 잎사귀를 오므리는 촉수여

\*조실 : 고덕면 자곡리에 있음.



미모사(감응초)

혼의 허무를 뚫는 나를 묶어다오  
어두컴컴한 땅을 파는 조실 감응초여,  
지상의 모든 입술들을 오므려다오 나를 가뉘다오

## 월산 다람쥐

높은 소나무 가지가 닿아 있는  
월산 골짜기 바위에 저물녘 다람쥐 앉아있다  
작은 굴속에서 나오는 운무 같은 어둠이  
작은 몸체를 감싸며 눈 위에 퍼지고  
어둠의 성소에서  
앞 발 들어 다람쥐가 힘겹게 빌고 있다  
도토리 혹은 곤충을 잡아먹으며  
드넓은 산 숲에서 태어나 살아온 길이란 위험천만하여  
수리부엉이에게 술하게 죽어갔는데  
바위에 올라 무슨 말인가 하고 있다  
말은 몸의 울림이고  
울림은 피 냄새를 풍기므로  
곧 머리 위에서 낚아챌 발톱을 불러올 것인데



잡아먹고 잡아먹히는 숲속에서  
눈에 잘 띄는 바위에 앉아 월산 다람쥐 산다

## 금오산 백로 떼

시골에 묻혀 시를 쓰는 친구여  
천 개, 이천 개, 삼천 개 이상의 종이학을 버려라  
갑자기 명줄 놓은 부인을 기리는  
종이학 접기를 끝내라 그네는 아이인줄을  
자네가 보살펴야 할 아이인줄 미처 몰랐던 탓이야  
시인이란 분명히 아이인데  
이리저리 채이며 사는 아이인데  
아이여서는 안 되는 삶의 방정식이  
핏덩이를 역류시켜 금오산 덮은 백로 떼 속으로  
훨훨 날아갔다가 이런 염천의 저녁 무렵  
아이 낳아 살던 처마 근처로 친구여  
강 건너 날아오는 것 아니겠나  
죽을 만큼의 연모가 나뻐 리는 없지만



아이로 살다가 언젠가는  
앞서 뒤서 우리도 저 백로 떼 속으로 날아갔다가  
백로로 후일 오지 않겠나 친구여

\*금오산 : 해발 234미터의 예산의 주산. 향천사와 금오정이 있다. 예산고등학교 뒤편에 여름 백로들이 군락한다.

## 수촌리 설까지

상처<sup>喪妻</sup>한 지 올해로 꼭 십 년째인  
코흘리게 불알친구는 뒷마루에 내려선  
늘 하던 대로 괴춤에서 담배를 꺼내 입에 문다  
새로 들어서는 충남도청 인근이라 부산한  
설날 아침, 혼자 세배 받기가 싫어  
어느 해부터가 자식 둘과 손자들을 피해  
슬금슬금 나온 바깥마당의  
감나무 하늘 맞받이에 십년 전 떠난 모습으로  
망치고혼인지 나뭇가지를 입에 문 설까지 난다  
구천에서 날아온 꼬리 분주히  
까마득한 허공의 허망한 얼굴처럼 휘 날아선  
묵은 감나무 가지에 앉는다

간 지 오래 되었는데 어제처럼 생생한 얼굴로 찾아와  
터진 생애에 \*생전예수<sup>生前豫修</sup>하는지  
꼭 십 년째 계속 눈물 훔치는 걸 본다

\*생전예수 : 죽은 뒤에 극락가게 해 달라고 생전에 올리는 제



삼교읍 역리에배당

## 역리 예배당 십자가

주일예배 드리고 나오는 교회 입구 계단에서  
 장년 내내 근 십 년을 함께 보낸 너를 만났다  
 나는 그날 녹아내렸다 단칸방에서 생이 거덜난 사내가  
 거덜난 삶을 잊고 너와의 순수를 기억했다  
 안치초등학교 교정, 그 봄날의 유채꽃 미풍과  
 교회 종탑, 여름밤 계단에서의 말 없는 눈빛과  
 역리 뜰, 그 무더운 여름날의 논둑을 오가며  
 집 앞 나의 승용차에 늘 인사를 한다던 너의 말들이  
 너의 미소와 함께 내 가슴을 때렸다  
 이미 아이를 둔 중년의 여인인 너를  
 많은 회중 앞에서 외락 껴안은 건 너던가 나던가  
 술한 돌팔매의 회로를 되돌아와 귓속말로  
 그때가 가장 행복했다는 말을 한 건 너던가 나던가  
 이력에 없는 대학청년부 지도교사 십여 년의

만남이 가슴 속 아름다움으로 남아  
 맑고 곱고 정겹기만 한 너의 미소가 아른거린다  
 동화라는 단어는 그때의 너와 나다  
 무한한 신뢰와 정이 산안개 너울을 휘감아 돌던  
 너의 미소는 나의 미소, 피 뜨거워 한 겨울에도 늘 덥다던  
 너를, 그토록 뜨겁게 아늑하던 너를  
 쓸데없이 피가 뜨거워 사고 치며 살아온 내 피가  
 단 한 번의 포옹도 없이 헤어졌다 만나 껴안을 때의  
 미소, 너의 미소인 역리 예배당 십자가

## 초막골 은사시나무

황토비알 뒤덮고 있는 은사시나무 이파리에서  
이상하게도 몸을 덮고 있는  
어둠의 깃을 접하곤 흠칫 놀라곤 하네  
바람에 유난히 더 반짝거리는 은사시나무 이파리는  
이파리 뒷면이 더 매끄럽고 빛나네  
밤이면 이마에 불을 켜 놓은 하늘별처럼  
환하게 불 켜진 등불들이  
은사시나무 이파리에 매달려 초 여름밤 꿈을 꾸는데  
가족들은 한 밤중에 깨어 내방의 불을 끄네  
눈이 잠 못 잔다고 눈 건강을 말하며  
불 끄는 소리에 설 잠들어  
잠 속에서 햇살과 그늘이 공존하는  
나무를 감싸고 있는 그 푸르고 하얀 몸통들 만나네  
나는 늘 어두웠으므로

밤에 내 방의 불을 끄면 자주  
한지 문살에 스미는 별빛에 흠칫흠칫 놀래어  
어려서 뛰어놀던 초막골 은사시나무에 들어가네



은사시나무

## 피춘말 유기장이

뒤뜰에 앵두나무 울타리 둘러쳐진  
작은 집에서 유기장이, 치를 만들었네  
낮으로 냇둑의 물버들을 베어 말렸다가 촘촘히 엮어  
치를 만들어 머리에 이고 장날 내다 팔았네  
고대광실에서 살다가  
재산 작파하고 혼자 할멈은 그렇게 살다 갔네  
사는 집이 내 명의로 되어 있어  
텃도지를 받곤 하였는데 어릴 때라서  
기억 속에 온통 울타리 빨간 앵두만 선명하네  
집 옆으로 작은 도랑물 흐르던 집은  
무너져 흔적 없고



버들고리

내가 거의 그 할멈의 나이에 이른 지금  
치를 만드는 재료였던  
그 겨울 냇둑 우거졌던 갯버들이 허영게  
맨 몸 내놓고 우는 내 뼈 울음을 엮어 밤을 밝히네  
피춘말 유기장의 삶이 시작된 거네

유기장이 : 고리버들로 고리짚이나 키 따위를 만들어 파는 것을 직업으로 하는 사람

## 시장땀 눈물

얼음장 세상이다 까막소 가서 운동 열심히 하고  
몸 잘 만들어 나오면 그때 보자며  
열두 살 여아를 폭행하여 성기와 항문을 없애버린  
사내가 유유히 호언하는  
이런 세상이다 그를 보면서 내가 한 일은  
육십년 동안 술 먹고 시를 써 온 일이다  
그간 해저의 동굴이 나의 거처였고  
그 속에서의 참회가 쾌락이었으니 얼음이다  
늘 깨지고 늘 스러지는 나는 얼음의 시체다  
대체 이 세상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는지  
무력한 블랙홀의 어둠에 묻혀  
병실에 박혀 마법의 이상한 나라 추상화를  
그리는 여린 소녀에게 무엇이 될 수 있는지  
여린 펜이 슬픈 시체에서 나와  
시장땀 구석에서 툭툭 기침을 하며 통곡한다

\*시장땀: 예산읍 주교리 일원의 시장

## 나쁜들 상여

뱀의 알에서 한 여인이 탄생했다  
너무도 아름다워서 도저히 눈을 마주칠 수 없었다  
그 소문이 퍼지자 온갖 사내들이 잠을 못 잤다  
초승달이 남기고 간 잔 빛이  
나쁜들 상여 주렁에 길게 매달리던 선달그믐 밤  
그 밤에 여인이 아이를 출산하였다  
여기서부터 개혁과 혼돈이 밀려와  
날카로운 상여멜대로 시대를 후리치며  
문 열이라 세상 문 열이라 상여에 탄 동자가  
아름다운 여인을 앞세워 외쳐댄다  
이윽고 밤 깊어 사람들이 모두 죽자  
조선을 운구하는 나쁜들 상여

\*나쁜들: 조선조 철종 때에 제작된 조선 전통 상여로 덕산면 광천리의 남은들, 일명 나쁜들에 존치되어 있다가 지금은 덕산 상가리 윗산소 옆으로 이전하였음. 이 상여에 흥선대원군이 부친인 남연군 이구李球를 경기도 연천에서부터 500리길을 운구하였다.

## 예산의 문화 유물·유적에 관한 관찰기록

안 학 원 \_ 시인

예산의 문화산수화

『예산문화산수화 1』에 이어서, 그 후속편으로 이번에 모습을 드러내 보이는 신익선 선생의 『예산문화산수화 2』 역시 예산지역에 골고루 분포되어 있는 문화 유물·유적에 관한 관찰기록이다. 이미 문화재로 지정받은 유형문화재로부터 예산지역의 이름 없는 하천이나, 묻혀 있던 고을 이름까지 다양한 물상들이 시편에 등장한다. 더러는 생경하고 더러는 친숙한 얼굴들이 시편 곳곳에 따리를 틀고 있다. 그 중에서도 필자가 나고 자란 터전인 예산군 신암의 문화재 관련 시편들은 유독 그 정취가 남다르다.

가파른 산길의 초행길 저런, 벌써 길이 끝나 있다  
비좁은 산길 위태하게 차 돌려 나와 뒤를 돌아보자  
산안개 속 타원형의 술잔이 생성된다  
기억해 낼 수 없는, 기억하고 싶지 않은 입술이  
켜켜이 배어 있어 누구의 입술인지 살필 수 없지만  
헤어진다는 상상을 할 수 없던 입술과 헤어진 지 이미 오래  
슬픈 일은 빨리 오고 상처는 깊고 길게 이어진다며 쨍그렁 술잔 부딪친다  
순간 영혼이 뜬다, 눈으로 본 다음 귀로 확인하면서  
서서히 혀로 음미하는 몸을 담았던 실제인 영혼, 사실

화구火口의 고열에서 몸 익혀 살아가는  
 생은 얼마나 삶고 살아져서야 끝나는 참혹한 과정이라, 사랑이란  
 게다가 사랑이란 얼마나 메마른 고사목이라  
 섭씨 천삼백 도의 화염에 단련된 생이 아니라면  
 썩어 천년을 견뎌온 무딘 생이 아니라면  
 삶이 될 수 없다 혹 삶이 아니라면 초행길 어찌 쟁그렁 어깨 맞대랴  
 영감으로 환청굽는 오천리 도공陶工의 생애가 잔을 올린다

—「오천리 도공의 생애」 전문

오촌리는 비산비야非山非野의 구릉지다. 1914년에 행정구역 통폐합에 따라 화산, 신탄, 상촌, 녹야, 아자를 통합하여 오늘날의 신암 마을이 탄생했다. 따라서 옹기 가마터로는 천혜의 요지이다. 고령토가 무궁무진하게 매장되어 있다. 인근 해미 등지에서 천주교 박해를 피하여 모여든 사람들이 생계를 위하여 신분을 숨기고 이곳에서 가마터를 지켰는데, 지금은 전국에서 최초로 지정된 도기 명인이 생존해 있는 고장이기도 하다.

신익선 선생의 「오천리 도공의 생애」는 그러한 도공陶工들의 생애가 곧 우리 지역의 소중한 문화란 인식이 담겨 있다. 흙으로 그릇을 구워내는 도공의 삶은 늘 피곤한 생활이다. 긴 한숨에 무한히 고단한 시간들을 막걸리 한 대접에 갈증을 달래며 이마에서 흐르는 땀을 닦는다. 더러 입술을 타고 흘러 들어온 땀방울을 삼키기도 하고, 더러 입술에 묻은 뿌연 자국을 훑어내다 보면 어느새 옹기 주둥이는 이미 굳어져 있다. 위 시편에서 등장하는 ‘산안개 속 타원형의 술잔이 생성된다/ … (중략) …/ 슬픈 일은 빨리 오고 상처는 깊고 길게 이어진다고 쟁그렁 술잔 부딪친다」에서의 ‘술잔’은 고달픈 도공의 삶의 환희이자, 우

리네 삶의 환희를 적시한 단어이다. 삶에서의 가장 찬란한 어휘인 환희는 그러나 이 시편의 첫 행에서 마지막 기적소리 울리며 떠나가는 기관차의 표정을 띤다. ‘가파른 산길의 초행길 저런, 벌써 길이 끝나 있’는 시의 첫 구절의 표정성은 ‘길이 끝남’으로 인하여 무한한 절망 내지는 적막의 휘장을 드리운다.

그리하여 마침내 ‘영혼이 뜬다’라는 죽음의 다른 용어를 표출하기에 이른다. ‘화구火口의 고열에서 몸 익혀 살아가’는 구절은 이를 잘 설명해 준다. 옹기가마에는 소나무를 사용하여 불을 지핀다. 소나무의 뼈, 광술은 화약을 만드는 데 사용된다. 그 소나무가 타오르는 화구에서 지글지글 타오르는 불길은 대단하다. ‘섭씨 천삼백 도의 화염’이란 구절이 말해 주듯이 화염의 열기로 옹기는 새 생명을 부여받는다. 비록 천주쟁이라하여 박해를 받고, 옹기쟁이라 하여 하대 받는 신분이었으나, 사랑만은 열렬한 불길로 타오른 화부火夫의 삶을 살았던 것이다. 다량의 제품 생산으로 단가를 줄여 유통시키는 시장 원리를 벗어나 옹기는 결국 경쟁력을 상실하고, 이제 불가마도 거의 사라졌지만, 지금도 신암 오천리에 오면 즐기차게 옹기를 굽는 명인을 만날 수 있다.

‘도공’이라는 말은 사실 모든 이에게 통용되는 말이다. 누구나 자기만의 ‘그릇’을 만들어 가야 하며, 그것이 곧 문화재이고 문화라는 울림이 이 시편에 그대로 녹아 있다. 결국 신익선 선생의 「오천리 도공의 생애」는 흙을 곱게 다듬어서 그릇으로 빚어내는 도공뿐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는 민초들의 ‘혼’을 이 작품에 투영한 것이다.

흙을 빚는 도공이 기층민의 고달픈 삶을 반영하는 단어인 반면에 이곳 신암 출생으로 조선의 대유大儒이자 조선시대 4대 명필 중 한 분이신 자암子庵 김구金絿 선생을 주제로 하여 쓴 작품인 「자암 김구」를 보자.

이십대 그 꽃다운 나이에  
 국왕과 마주앉은 청년을 봐  
 조선 국왕과 단둘이 대작對酌하며 노렐 부르네  
 승정원 좌승지를 거쳐 종2품 홍문관 부제학으로  
 왕을 보필하다가 겨우 서른한 살에  
 전라도 남해로 유배를 떠난 젊은이를 봐  
 해배 뒤 향리에 들어서야 양친의 구물俱沒을 알고는  
 부모의 묘 옆에서 시묘 살이 하다가  
 묘 옆에서 운명한 조선의 대유大儒이자 명필  
 예산 신암의 유혼을 좀 봐  
 소탈하게 충효로 산 어른을 좀 봐

- 「문의공, 자암 김구」 전문

자암 김구 선생은 신암면 종경리에서 태어나고 성장은 서울 인수동에서 하였으며, 이분의 서체를 인수체라고 한다. 청년 시절에 늦은 밤에 불을 켜 놓고 독서하는 모습을 본 임금이 술상을 차리게 하여 국왕과 함께 술을 마신 전력이 있는 자암의 묘소는 그의 부모님이 잠드신 신암 종경리에 있다. 불과 6년 남짓의 벼슬살이를 하였고, 그 두 배가 넘는 세월을 전라도 남해로 유배를 당하여 거기서 지은 작품인 화전별곡이 있다. 남해 유배지를 화전花田, 즉 ‘꽃밭’이라 부른 자암은 글씨 또한 자암 특유의 풍류와 기개가 넘치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는 조선의 대유다.

조선왕조 오백년 역사에서 4대 명필을 꼽는다면 안평대군, 한석봉, 김구, 추사인데 그 중에서 무려 두 분이냐 이 고장 신암 출신이니 가히 이곳을 일러 예향이라 하는 것이다. 전하는 말에 의하면 자암의 글씨는 특히 중국에서 인기가 높아 소위 인수체를 팔고 사는 일이 성행했다고 한다. 이를 알게 된 자암이 크게 화를 내고는 붓을 꺾어 전해져 내려오는 작품이 많지 않다. 위 시를 읽으면 이 시를 쓰기 이전부터 시인은 자암의 덕德과 도道에 경도되었음이 틀림없다. 덕은 정의로움을 말함이며 도는 갈 길을 지향함을 표상한다. 그래서 자암 선생은 사후에 예산의 덕잠서원, 임피의 봉암서원, 남해의 죽림서원, 장단의 임강서원에 배향되어 제사밥을 드시고 계신다. 이렇게 지금으로부터 사백여 년 전에 종경리에서 사셨던 어른을 다시 만나는 기쁨이 바로 「문의공, 자암 김구」 위 시편이라 하겠다.

도공, 대유를 말함인 문화재요 문화라면 예산에 존치하는 사물 또한 문화재이며 문화라는 시각이 「고운봉 노래비」「모과울 방충망」「초막골 은사시나무」 등등으로 이루어진 슬하계 거명된 예산지역에 산재한 물상들이다. 이 중에서도 사람을 먹여 살리는 농토를 소중히 여겨 호명된 작품으로 보아지는 「예당저수지 수문」은 언어의 중의성이 돋보이는 작품이다.

새벽에 잠깨어 일어나  
 주체할 수 없소  
 간 밤 내내 당신 보고 싶어  
 장대비에 불어난 몸으로  
 아아 시근벌떡  
 일어서서 광야를 달린다오

그리운 당신께 달려간다고

- 「예당저수지 수문」 전문

예당저수지는 예산, 당진 평야의 젖줄이다. 예당호는 청양군 화성에서 발원하여 대항으로 유입되어 만들어지며, 육지 중의 바다로 불린다. 예당호는 원래는 국사봉 아래 보를 막아 원리들을 적시던 국사당보로 전해진다. 부연하면 국사당보는 예산군 오가면 오촌리의 광산김씨 김고양 댁 지암 자손인 종손부가 꿈속에 긴 수염을 드러낸 노인이 '무엇하고 있느냐 국사봉 아래 보를 막아 원평 원천 오촌리의 물을 다스려 가뭄을 해결하라'는 호통에 놀라 깨어보니 화창한 봄날에 수로자리가 흰 눈으로 표시되어 있었다고 한다. 국사당보가 곧 예당저수지 수문에 해당한다 할 것인데, 이 시에서 '물'은 생동하는 생명체로 표기되어 있다. '새벽에 잠 깨어 일어난' 것은 '물'이면서 동시에 '생명체'이다. 이 예당저수지 수문을 통과한 물은 예산읍내로 오면 무한천 상류를 형성한다.

이 무한천이 당진의 행담도에 이르면 평택천, 곡교천, 삼교천과 합류하여 백제시대에는 백강이라 하였다. 백강은 급기야 서해바다의 근간을 이루는 원천이었는데 이처럼 그 근원을 살펴 '물'이 '광야'를 달려가 마침내 '그리운 당신'으로 변모하는 연유는 '물'이 상징하는 생명 또는 영원에의 영속성에 기인한다 하겠다.

신익선 선생은 예산 삼교에서 태어나 줄곧 성장기를 살았기 때문에 삼교천의 말미가 되는 지점을 소상히 알고 있어 그 근원 중 하나인 예당저수지 수문이란 시적 표현이 가능하다고 생각되어 진다.

물이 중요한 변수인 농사라는 직업은 흙을 매만져 일궈내는 창조의 순박함을 미덕으로 한다. 농업은 생계의 근본이라 그 누구도 농업을 소홀히 여겨서는 안 된다는 점도 이 시편에 내포된 미덕 중 하나다. 그런 면에서 「예당저수지 수문」은 간결한 시어만큼이나 삶과 사랑의 중요성을 갈파하고 있다 하겠다. 이는 마치 거북이 등처럼 갈라진 논바닥으로 불어난 물이 물꼬를 넘어가는 소리가거나 아기의 젖 넘어가는 소리 같은 울림이 있다. 특히 위 시편에서 '일어서서 광야를 달리'는 구절은, 농촌지역의 매캐한 흙냄새 물씬 풍기며 예산 오가의 원리들에서 당진의 소들강문까지 달려가는 물길의 생명력을 표현한 것이다. 이처럼 한 지역의 문화란 고정되어 있는 고체가 아니다. 그것은 생동하고 뻗어나가는 생명의 근원인 '물'의 역사인 것이다.

이밖에도 『예산의 문화산수화 2』 전편에는 예술적 조형미를 갖춘 시편들이 무려 일백여 편이 실려 있다. 이를 일일이 열거하여 논하기란 지난한 일이지만 이 시편들이 새로이 탄생하는 것에 대해 같은 고향의 글쟁이로서 기쁨이 크다. 신익선 선생은 서정시와 서사시를 겸비한 예산이 낳은 시인이면서 동시에 작금의 충남을 대표하는 시인이다. 농사를 짓는 농사꾼은 씨앗을 준비하고 호미와 삽을 멀리 하지 않는다. 것처럼 지필을 손가락처럼 소중히 여기고 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 글쟁이의 전형이 바로 신익선 선생이 아닌가 한다. 어느 목객이 자신이 태어나고 살아온 고장을 노래하지 않으랴. 농부가 농토를 뒤져 먹고 살듯이 시인목객이 내 고장을 노래하고 내 고장을 형상화하여 작품을 생산한다면 그것이야말로 행복한 일이다. 이런 면에서 신익선 선생은 부러운 점이 많다.

## 예산문화원 발간 도서목록

- 040 예산의 문화산수화(2)
- 039 충청남도 예산 방언 사전 2
- 038 우리가 몰랐던 예산문화유산 이야기
- 037 일제하에서 문예광의 표정
- 036 충청남도 예산 방언 사전 1
- 035 예산 임존성
- 034 예산의 문화산수화(1)
- 033 예산의 인물
- 032 예산군 강역변천사 연구
- 031 대흥 임존성 연구
- 030 염정문화
- 029 추사 김정희 선생 추모 전국서예백일장 수상작품 도록
- 028 예산의 인물 증보
- 027 예산의 풍물 증보
- 026 예산의 실학
- 025 회암서원 창건록
- 024 동학원 발원
- 023 일제강점기의 예산지역사
- 022 전통혼례증보
- 021 예산군 선사유적지표조사 보고서
- 020 춘암 박인호 선생
- 019 예산의 문화유적도
- 018 예산의 민요
- 017 추사 김정희 선생 실기
- 016 맥인지상득
- 015 내포제 시조 정약보
- 014 천방산 아랫마을 이야기
- 013 갈신리 산신제
- 012 예산 백제 사면석불의 고찰
- 011 호서은행의 설립과 그 운영의 의지
- 010 일제시대 각종 신문 예산관련 기사 모음집
- 009 추사 김정희 선생 연구
- 008 자랑스런 예산군 문화유산
- 007 예산지방의 풍물
- 006 예산의 인물
- 005 내고장이 낳은 인물 춘암 박인호 연구
- 004 예산군 향토민속축제 발전방안
- 003 예산의 지명유래
- 002 전통혼례
- 001 갈신리장승제

### 의좋은 형제의 고향 예산의 문화산수화 2

인쇄 2013년 12월 15일

발행 2013년 12월 20일

지은이 신익선

펴낸이 김시운

펴낸곳 예산문화원

충남 예산군 예산읍 천변로 90번길 3(대회리)

전화 041-335-2441

기획 박세진

행정지원 김상희 윤선은

사진 이병헌

편집인쇄 도서출판 문화의힘

대전 동구 삼성1동 125-6 한밭오피스텔 406호

전화 042-633-6537

© 신익선, 예산문화원 2013

ISBN 978-89-968223-7-0

- 이 책의 내용을 인용 또는 전재할 경우에는 저자와 예산문화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 이 책은 충청남도과 예산군의 지원을 받아 발간되었습니다.

[비매품]

‘도공’이라는 말은 사실 모든 이에게 통용되는 말이다. 누구나 자기만의 ‘그릇’을 만들어 가야 하며, 그것이 곧 문화재이고 문화라는 울림이 이 시편에 그대로 녹아 있다. 결국 신익선 선생의 「오천리 도공의 생애」는 흙을 곱게 다듬어서 그릇으로 빚어내는 도공뿐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는 민초들의 ‘흔’을 이 작품에 투영한 것이다.

- 안학원\_시인



ISBN 978-89-968223-7-0

[비매품]